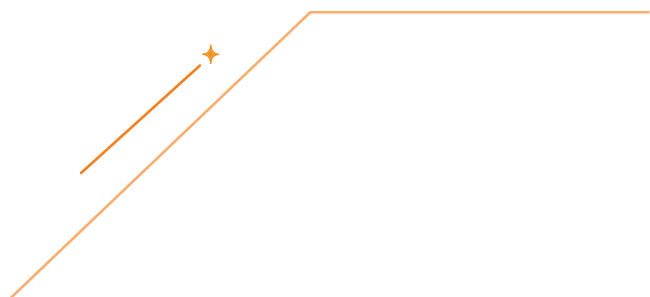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통합편

고등

공통국어1



I 운문 문학

+ 개념 확인하기

008~013쪽

- 1 ○ 2 ○ 3 X 4 긍정적 5 태도 6 어조 7 ④
8 × 9 ○ 10 ○ 11 시각적 심상 12 공감각적 심상
13 촉각적 심상 14 ④ 15 X 16 ○ 17 X 18 점층법
19 나열 20 영탄법 21 과장법 22 X 23 X 24 원관념
25 감성 이입 26 객관적 상관물 27 X 28 ○ 29 ○
30 시선 31 수미 상관 32 기승전결 33 선경 후정 34 ○
35 X 36 (1) ㉠, (2) ㉡, (3) ㉢, (4) ㉣ 37 비평 38 소통

DAY 01

1 방문객 내신 올리기

014~015쪽

- 01 ② 02 ④ 03 ① 04 ①

방문객_정현중

해제 이 작품은 타인을 방문객으로 표현하여 일상적인 만남의 의미와, 그 가치를 전달하는 시이다. 만남을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으로 새롭게 표현하고, 만남의 과정 속에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과 자세

특징 •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함.
• ‘~이다.’의 반복으로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서술함.

한눈에 보기

1~2행	3~8행	9~13행	14~15행
만남의 의미와 가치	타인과의 만남이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	타인의 내면에 대한 이해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01 이 시는 의미적으로나 심상적으로 대비되는 시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의 미래’는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시어로 대비의 의미가 아니다.

모답 풀이

- ① ‘~이다.’, ‘오기 때문이다.’ 등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13행을 명사 ‘마음’으로만 구성하여 만남의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타인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사람이 온다’는 것을 ‘그의 과거’, ‘현재’, ‘그의 미래’,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고 열거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이때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제시되므로 점층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이다.’의 평서형 문장의 반복으로 만남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 이 시의 표현상 특징

시어나 문장 구조의 반복	• ‘~이다.’, ‘오기 때문이다.’ 등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함. •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과 같이 ‘부서지기’를 반복하여 약한 마음의 속성을 강조함.
의인법의 사용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 마음’과 같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상대를 조심스럽게 위로하려는 태도를 강조함.
평서형 문장의 사용	‘어마어마한 일이다.’, ‘오기 때문이다.’, ‘환대가 될 것이다.’와 같이 ‘~이다.’의 형태를 활용해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함.

02 화자는 타인과의 만남을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삶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② 만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과거’, ‘현재’, ‘미래’가 시어로 나타나지만 이는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화자는 사람 간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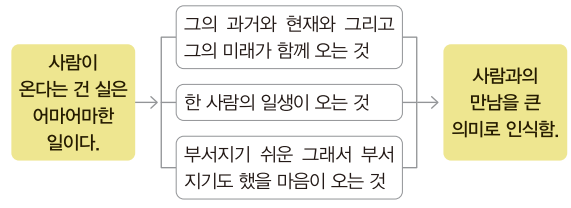
03 화자는 타인과의 만남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하여 만남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②, ④ 타인과의 만남은 한 사람이 전체의 삶의 흐름을 마주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므로 과거보다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거나 과거의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시에서 타인과의 만남이 우연인지 또는 필연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이 시에서 타인의 마음을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상처받기 쉬운 타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알아두기

+ 만남의 의미



04 <보기>에서 ‘바람’은 내면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화자는 ‘바람’이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다’고 인식한다. 더불어 그러한 ‘바람’을 ‘흉내’ 내는 것이 ‘환대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은 억압적인 현실에 놓인 존재

를 위로하고 교감하는 존재로 볼 수 있으나 억압적인 현실에서 소신을 지키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모답 풀이

- ②, ③ <보기>에서 '바람'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스며들어 내면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였다.
- ④ 이 시에서는 타인을 대할 때 <보기>의 '바람'과 같은 태도, 즉 대상과 교감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태도를 지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⑤ <보기>에서 '바람'은 현실의 장애나 구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 구원의 존재가 된다고 하였다.

DAY 01

2 길 내신 물리기

016~017쪽

01 ③ 02 ⑤ 03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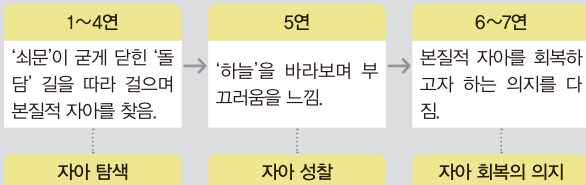
길-운동주

해제 이 작품은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시이다. '풀 한 포기'조차 없고, '쇠문'이 굳게 닫힌 삭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탐색 과정을 멈추지 않는다. 시적 화자는 돌담을 더듬다 올라다 본 푸른 '하늘'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려는 내면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주제 본질적 자아 회복을 향한 의지

특징 • 경어체와 고백적 어조를 통해 주제를 드러냄.
•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 화자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함.

한눈에 보기



01 '길'은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을 인식한 후 자아를 탐색하는 공간이자 자아의 본질을 찾는 삶의 여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잃어버린 자아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이 시의 화자는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며 길을 걷고 있다. 화자는 이 시의 6연과 7연에서 '길'을 걷는 이유가 '잃은 것'인 '담 저쪽'에 있는 자신을 찾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담 저쪽'의 자신은 화자의 본질적 자아를 의미하므로, '길'이라는 시어는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탐색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 ② 2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길'은 돌담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다.

④ 4연과 6~7연을 통해 '길'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⑤ 4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연속되어 있으며 이는 시간의 연속성, 즉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 과정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알아두기

★ '길'을 걷는 과정의 상징적 의미

상실감을 느낌.	길에 나섬.	'길'의 상징적 의미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임.	담 저쪽의 본질적 자아를 만나기 위해서임.	자아를 탐색하는 장소임.

화자가 잃어버린 것은 담 저쪽에 있는 본질적 자아로, '길'은 현재의 부끄러운 자아를 극복하고 본질적 자아를 찾는 탐색의 장소이며, 화자는 '길'을 걷는 여정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2 화자는 돌담을 더듬다 올라다본 푸른 '하늘'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때 '하늘'은 지고하고 순수한 존재로 화자의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며,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모답 풀이

- ①, ② 본질적 자아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 ③ 본질적 자아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절망감을 의미한다.
- ④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03 [E]에는 본질적 자아를 되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 자아의 회복이 좌절된 화자의 절망적 인식이 담겨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A]에는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여 본질적 자아를 상실했음을 인식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는 <보기>를 통해 이해할 때 암울한 시대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산 것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B]에는 본질적 자아와의 소통이 '돌담', '쇠문'으로 단절된 암울한 현실을 '긴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지향하는 현실적 자아와 단절되어 있는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C]에는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질적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암울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D]에서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찾기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보기>를 통해 이해할 때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성찰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아두기

★ 운동주 시에 표현된 '부끄러움'의 의미

- 일제 강점기를 살아 내야 했던 지식인 청년이 참회와 성찰의 과정에서 느낀 감정임.
-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과 반성, 연민 의식에서 비롯되어 미래의 삶을 규정함.
- 운동주의 마음과 행동의 규율이자, 그의 삶과 시를 지탱해 주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음.

산속에서_나희덕

해제 이 작품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시적 화자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에 대한 성찰을 노래한 시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실의에 빠진 누군가에게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불빛'과 같은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시적 화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주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특징 • 도치법을 사용해 의미를 강조함.
•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함.

한눈에 보기

화자의 경험		경험을 통한 깨달음	
1연	길을 잃었을 때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	→	2연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의 위로
3연	산속에서 밤을 맞는 사람들에게 작은 지붕들이 주는 위로		4연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먼 곳의 불빛

01 이 시의 화자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답 풀이

①, ② 이 시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하고 있을 뿐, 자연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모습이나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읊조리고 있을 뿐,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지 않다.

⑤ 이 시에서 화자는 삶의 실상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있을 뿐, 삶에 대한 달관이나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알아두기

◆ 이 시의 화자가 전달하려는 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밤을 맞게 된 화자는 멀리서 보이는 '불빛'에 따뜻함을 느끼고, '거대한 산줄기'보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로부터 더 큰 위안을 얻는다. 화자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에 관하여 성찰한다.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며,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 화자는 이러한 '누군가 맞잡을 손'이나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자고 말한다. 즉, 삶의 길에서 실의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02 이 시에서 희망과 위로, 위안 등의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시어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이며, 고난과 슬픔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시어는 '어둠', '밤'이다. 따라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끼리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③이다.

03 <보기>에서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나아가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 화자는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불빛'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우리 역시 실의에 빠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삶의 자세를 고민해 보는 ⑤의 내용이 문학의 윤리적 기능과 가장 관련이 있다.

모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막무가내의 어둠',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먼 곳의 불빛'과 같은 시각적 심상과 '불빛의 따뜻함'과 같은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암담한 상황과 희망을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감각적 심상을 통해 내용을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문학의 미적 기능에 따른 감상이다.

② 운율을 확인하며 시의 리듬을 느끼는 것은 문학의 미적 기능에 따른 감상이다.

③ 시어가 주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문학의 미적 기능에 따른 감상이다.

④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따른 감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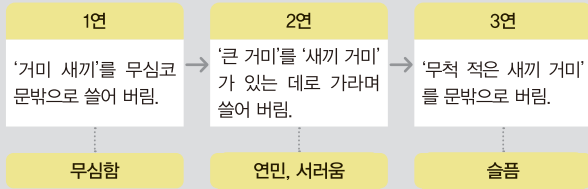
수라_백석

해제 이 작품은 거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 붕괴된 가족 공동체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화자는 무심코 거미를 문밖으로 쫓아 버린 뒤 거미 가족을 헤어지게 한 것 같아 그들에게 미안함과 연민을 느끼고 있다.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고려하면 시인은 당시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거미 가족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인이 보기에 당시 우리 사회는 참담한 비극의 현장, 즉 '아수라(阿修羅)'와 같은 세계였던 것이다.

주제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특징 •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됨.

한눈에 보기



01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행수가 1연은 2행, 2연은 4행, 3연은 6행으로 점차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시구 역시 늘고 있다. 또한 1연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를 밖으로 쓸어 버릴 정도로 무심했던 화자가, 2연과 3연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서러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하고 있다.

모답 풀이

- 1 이 시의 3연에서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가족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미래 상황을 확신한 것은 아니다.
- 2 1연과 3연에서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는 화자의 행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 4 이 시는 거미를 의인화하여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시가 거미를 의인화하여 당시의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시적 대상인 거미의 부정적인 특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5 이 시에는 시적 대상인 거미와 화자의 처지를 대조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2 화자는 1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지만, 2연에서는 ‘새끼 거미’가 끌려 나간 곳에 찾아온 ‘큰 거미’를 보면서 ‘큰 거미’가 ‘새끼 거미’의 어미라고 여겨 가슴이 찢어질 듯함을 느낀다. 3연에서는 아린 가슴이 찢기 전에 ‘큰 거미’가 없어진 곳에 온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거미를 문밖으로 버린다. 하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밤’과 같은 혹독한 현실이기에 그저 슬퍼할 뿐이다.

03 화자는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거미들을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즉, ‘문밖’은 거미 가족이 재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밖’은 차디차기만 하다. 그 차가움은 화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거미 가족이 쉽게 만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문밖’은 거미 가족에게 주어진 혹독한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4 <보기>에서 ‘수라’는 선(善)과 대비되는 악(惡)의 신인 ‘아수라’의 약칭이라고 하였고,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는 우리 민족이 암울한 현실을 겪고 있던 일제 강점기이므로 시의 제목은 거미 가족처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1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논리는 이 시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 2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현실 앞에서 갈등하는 지식인의 고뇌는 나타나 있지 않다.
- 3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던 세태는 이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
- 5 외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작품의 창작 당시인 193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다.

알아두기

◆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제목 ‘수라’의 의미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는 거미 가족처럼 해체되는 비극을 겪고 있었다. ‘수라’는 혼란 상태에 빠진 곳이나 그런 상태 자체를 비유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제목은 흩어진 거미 가족의 상태나 일제 강점기에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우리 민족의 상태가 모두 ‘수라’와 같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3 1 나뭇잎

나뭇잎

022~023쪽

01 ①

02 ③

03 ①

04 ⑤

나뭇잎 _ 손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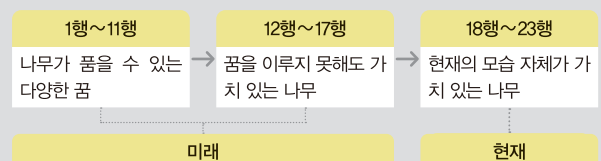
해제 이 작품은 의인화된 나무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나무가 꿀 수 있는 꿈과 가능성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려 낸 시이다. 꿈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점과 현재에 집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따뜻한 어조로 일깨우고 있다.

주제 존재의 가치에 대한 역설적 인식과 현재에 주목하는 자세의 중요성

특징

- 의인화된 자연물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함.
- 시어를 연쇄적으로 활용해 시상을 발전해 나감.

한눈에 보기



01 이 시는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모답 풀이

- ② 이 시에서는 '계단 → 창문(들) → 바다'로 시어를 연쇄·반복함으로써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니', '-구나'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화자는 나무의 꿈이 좌절된 상황('장작'이 된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몸을 데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화자는 '나무'를 청자인 '너'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02 이 시에서 화자는 나무에게 꿈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존재 가치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었다는 부분에서 타인을 위한 희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1~11행에서 화자는 '너(나무)'에게 꿈을 물어보며 나무가 꿈을 수 있는 다양한 꿈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꿈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꿈이 허상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1~11행에서 화자는 나무가 꿈을 수 있는 다양한 꿈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18~23행에서 화자는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는 지금의 '너'에게 집중할 것을 청하는데, 이는 현재의 상황과 모습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03 ㉠ '다락방'은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이 있는 곳으로,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여기서 '바다'는 '너(나무)'가 지향할 것이라고 화자가 가정한 대상이므로 ㉠이 꿈을 꾸기 어려운 현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② ㉠의 '배'는 시적 대상이 꿈을 수 있는 꿈 중 하나이다.
- ③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라고 하였으므로, ㉡은 시적 대상이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에는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장작으로 쓰이더라도 누군가의 몸을 데우는 데 쓰일 수 있음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은 시적 대상이 '흔들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다.

04 [A]에서는 '의자', '책상', '계단', '창문들', '배'와 같이 시적 대상이 꿈을 수 있는 꿈을 열거하고 있다. [B]에서는 미래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적 대상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다. [C]에서는 현재에 주목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화자는 [A]에서 '너'가 꿈을 수 있는 다양한 꿈들을 제시하였다.
- ② 화자는 '너'가 지닌 부족한 요소를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B] 상황의 원인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B]에서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눈을 감을 지도'에 사용된 '-을지'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아울러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나 '한 줌 재가 되었지만'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너'가 겪게 될 일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 ④ [C]에서는 '하지만'이라고 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으므로, [B]에서의 가정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C]가 '너'가 주의해야 할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DAY 3

2 숲

내신 물리기

024~025쪽

01 ⑤

02 ①

03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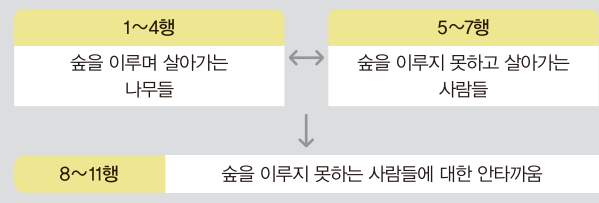
숲 -정희성

해제 이 작품은 제각기 있어도 숲을 이루는 나무들과 달리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시이다. 나무들이 숲이라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나무와 달리 인간들이 사는 사회는 서로 무관심하고 의미 없는 관계만을 맺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공동체적 삶을 향한 소망

특징 • 의문형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함.
•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현대인들의 소외된 모습을 나타냄.

한눈에 보기



01 이 시에서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시에서 '메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는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각박한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답 풀이

- ① 이 시는 '숲 → 광화문 지하도 → 이 메마른 땅'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이 시는 '나무들 ↔ 사람들', '숲 ↔ 광화문 지하도, 메마른 땅'처럼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제각기 있어도 숲을 이루는 나무들과 달리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 시는 '숲이었어', '있더군' 등에 드러나는 사색적 어조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이 시는 '아닌가'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외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 이 시의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숲	나무들이 숲을 이룸.
↓	
광화문 지하도	솔한 사람들이 숲을 이루지 못함.
↓	
이 메마른 땅	'낯선 그대'가 '나'와 숲을 이루지 못함.

- 02 화자는 '숲'에 가서 제각기 서 있는 나무들이 개별적이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나무들의 개별성은 현대인들이 보여 주는 개인화 현상과는 다른 것으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제각기 서 있는 숲의 나무들을 보고 존재가 지닌 근원적 고독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시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모답 풀이

- ② 1~4행을 통해 볼 때 화자가 '숲'의 '나무'들을 개별적이지만 서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7행의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를 통해 화자가 '솔한 사람들'로 명명된 현대인이 '나무'와 달리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8~9행에서 화자는 현대인들이 '메마른 땅'에서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난다고 표현하였는데, 10~11행에서 이러한 '그대와 나'가 숲이 아니라고 한 것을 통해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7행의 '그들(그대)'에게 국한된 안타까움의 내용이 10~11행에서는 '그대와 나'로 확장되고 있다.

- 03 ㉠ '숲'은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공간이며, ㉡ '광화문 지하도'는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공간이다. 화자는 10~11행에서 '그대와 나는 왜 / 숲이 아닌가'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공동체적 삶을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현대인들이 함께 숲을 이루기를 바라는 소망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에는 화자가 지양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에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존재하므로, 화자의 적막한 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는 인간 사회와 대비되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담긴 자연의 공간이므로 화자의 소박한 일상의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이 시에서 ㉠은 긍정적 의미의 공간이고, ㉡는 부정적 의미의 공간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③ ㉠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므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고, ㉡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므로 앞날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⑤ ㉡에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에 삶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1 깊은 흙 내신 물리기

026~027쪽

01 ④ 02 ① 03 ①

깊은 흙-정현종

해제 이 작품은 인공적인 문명으로 자연 본래의 모습이 파괴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시이다. 자연을 상징하는 '흙길'은 '깊은', '사람다운 불편'으로,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아스팔트'는 '알박한', '짐승스런 편리'로 표현하며 인공적인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연 본래의 모습을 파괴하는 인공적인 문명에 대한 비판

특징 •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 대조되는 시어 및 시구를 병치하여 화자의 인식 차이를 드러냄.

한눈에 보기

1연~2연	3연~5연
인공적인 문명으로 인한 변화	자연과 문명의 대비되는 속성

- 01 이 시에서 흙은 본래의 자연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성을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풀어 놓은 대상은 아니다.

모답 풀이

- ① '깊은 자연 / 얕은 문명.'과 같이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여운을 남김으로써 독자가 시의 주제를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② '깊고 깊었다'와 '사라졌다'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원시 그대로의 자연이 가지는 깊이와 인공적인 문명으로 인한 변화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⑤ '깊은 흙'과 '알박한 아스팔트', '사람다운 불편'과 '짐승스런 편리', '깊은 자연'과 '얕은'과 같이 대조적 의미를 지닌 유사한 통사 구조의 시구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두 대상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 02 1연은 아스팔트로 덮인 언덕길에서 사라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흙길이 아스팔트로 포장되면서 깊음이 사라졌다고 한 것이지 언덕길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답 풀이

- ② 2연에서는 아스팔트 때문에 자연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숲의 정령들'이 사라졌다고 하여 아스팔트가 자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3연에서는 '흙'을 '깊은'으로, '아스팔트'를 '얕박한'으로 표현하여 대조함으로써 '흙'과 '아스팔트'에 대한 화자의 상반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4연에서는 '편리'를 '짐승스런'으로, '불편'을 '사람다운'으로 수식함으로써 '편리'와 '불편'의 사전적 의미와 반대되는 이면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⑤ 5연에서는 '흙'을 '깊은 자연', '아스팔트'를 '얕은 문명'으로 확장하여 대조함으로써 자연과 대비되는 문명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 '자연'과 '문명'의 대비

'자연'과 '문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깊음'과 '얕음'이라는 단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화자는 '본래의 자연'은 '깊음'이 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문명의 모습은 '얕'다면서 인공적인 문명은 '깊음'을 잃어버린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 03 <보기>에서 정현중 시인은 작품에서 현대 도시를 생명력이 메마른 공간으로 그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에 남아 있는 생명력을 찾아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②, ④, ⑤ 4연에서 불편하더라도 자연 본래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인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시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해야 함을 드러내는 생태 시로 볼 수 있다.
 ③ '흙'과 '숲'은 '자연'을, '아스팔트'는 '문명'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다.

DAY 04

2 뿌리에게 내신 물리기

028~029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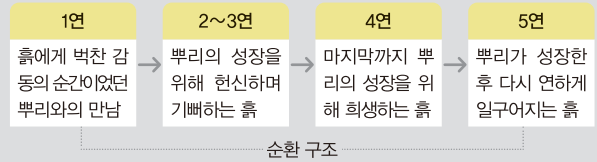
뿌리에게_나희덕

해제 이 작품은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모성애를 '뿌리'와 '흙'의 관계에 비유해 표현한 시이다. 흙과 뿌리를 의인화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는 헌신적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

- 특징**
- 대상의 성장 과정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생명의 탄생과 성장의 순환 구조를 보임.
 -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냄.

한눈에 보기



- 01 이 시에서 '타고 내려올수록'과 같은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는 뿌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명의 유한함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모답 풀이

- ① 이 시는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과 같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성장한 뿌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이 시에서는 '아, 나의 사랑'과 같이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뿌리에 대한 흙의 헌신적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에서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과 같은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뿌리에게 이김없이 사랑을 주는 흙의 희생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이 시는 뿌리의 성장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흙의 순환 과정도 보여 주고 있다.

- 02 2연에서 화자는 '나를 뚫고 오르렴, / 눈부서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영양분이 많은 연한 '흙'을 통해 '뿌리'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흙'의 희생을 드러낸 것이다. 4연에서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라고 하였으므로 '뿌리'가 타고 내려올수록 '흙'은 잘 부스러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3연의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 네 뻗어 가는 끝을 하냥 축복하는 나는'에서 '흙'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뿌리'를 지지하고 축복해 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② 1연의 '네 숨결 처음 대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 밝은 피 뿜아 내게 흘러보내며 즐거움에 떨던'에서 흙이 뿌리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낀 벅찬 감동과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연의 '나를 뚫고 오르렴'에서 '흙'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뿌리'가 더 큰 성장을 이루기를 소망함을 알 수 있다.
 ④ 2연의 '네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와 3연의 '척추를 휘어 잡고 더 넓게 뻗으면 /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를 통해 '흙'은 '뿌리'가 성장할 때마다 '뿌리'가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을 알 수 있다.

- 03 이 시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뿌리'와 '흙'의 자연적 관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 ㉢, ㉣은 모든 것을 다 내어 주는 '흙'을 의미하지만 ㉤은 성장하는 '뿌리'를 의미한다.

- 04 이 시는 흙과 뿌리를 의인화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는 헌신적 사랑을 그리고 있으나 이러한 사랑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회복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모답 풀이

①, ③, ④, ⑤ 이 시에서는 '연한 흙' → '착한 그릇' → '깎대기' → '빈 그릇' → '연한 흙'으로 뿌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과정을 통해 다시 재생하고 있는 순환적 삶을 그림으로써 대상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 계속 이어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흙과 뿌리의 관계를 통해 자식을 향한 헌신적인 모성애를 연상하고 희생과 인내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이 순환 속에 존재하며, 우리 모두 누군가의 뿌리이고 또 누군가의 흙이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030~031쪽

01 ① 02 ② 03 ③

01 ㉠의 2행과 3행에서는 각각 '바람'과 '꽃들'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그 대상들이 화자 자신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까닭을 알고 있다고 표현하며 이들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에는 인격을 부여한 자연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모답 풀이

② ㉠은 '바다'라는 종결 어미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에서도 '바다'라는 종결어미가 동일하게 반복되어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③ ㉠은 5연에서 '하늘'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푸릅니다'라는 색채어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에는 색채어가 쓰이지 않는다.
④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적 심상이 다른 감각적 심상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과 ㉡ 모두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에는 화자가 '길'을 걸으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02 [B]에서 화자는 산길을 걸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로, 삶의 고달픔이라는 부정적인 정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① 1행에서 화자는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화자는 '집을 떠나'는 일에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집을 떠나 산길을 찾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과 '힘을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들이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는다는 표현에서는 삶의 자취를 남긴다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길'을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다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5연에서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지 못한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은 확인할 수 없다.

모답 풀이

① '쇠문'은 '담 저쪽'에 있는 잃어버린 '나'와 화자의 만남을 막고 있으므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길'이 통한다는 것은 '길'을 걸으며 화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와 연결하여 작품을 이해해 본다면, 부정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자기 탐색과 성찰을 하는 '길'이라는 공간과 달리 '하늘'은 막힘이 없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다. 결국 '하늘'을 '부끄럽게' 푸르다고 인식하는 것은 화자가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6연에서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였고, 화자가 사는 이유는 7연에서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라 하였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잃은 것'인 '담 저쪽'의 '나'를 찾기 위해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2회

031~032쪽

04 ① 05 ④ 06 ①

04 이 시는 '흙'인 화자가 청자인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뿌리'에게 '밝은 피'를 '흘려보내며 즐기'워 하고, 그를 축복하는 '흙' 스스로가 '은밀한 기쁨'을 가졌다고 말하는 데에서 '흙'이 '뿌리'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② 자연물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어떠한 대상이 부재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깊은 곳'이라는 공간을 특정한 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작품에서 그와 관련한 반어적인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화자는 대상을 향해 축복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동일한 종결 어미가 반복되는 것은 시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며 시적 대상은 '뿌리' 뿐이다. 다양한 대상을 순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5 ㉠과 그 앞뒤 맥락을 확인하면, 성장하는 '뿌리'를 축복하는 '흙'의 마음을 담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포용력의 회복을 기약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모답 풀이

① '더운 김'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흙'과 '뿌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흙'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흙'이 희생적 사랑을 '뿌리'에게 베풀고 있다고 하였고, '흙'이 '뿌리'에게 '피'를 흘려주는 모습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흙'의 희생적 사랑에는 포용력과 따뜻함이 있다고 하였다. '흙'이 '뿌리'를 '감싸'는 부분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은 모든 것을 '뿌리'에게 베풀고 '깎대기'가 되어 버린 '흙'이 자신의 마지막까지 '뿌리'에게 주려는 모습으로, 희생을 감내하는 '흙'의 모성을 보여 준다.

- 06 ㉔는 모성을 상징하는 '흙'의 처음 모습을 의미하며, ㉔는 '뿌리'에게 자신의 것을 베풀어 처음의 속성을 잃어버린 '흙'의 모습을 나타낸다. ㉔는 다시 처음의 속성을 회복한 '흙'의 모습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흙'이 누군가에게 다시 모성을 베풀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흙'의 변화 과정을 통해 모성이 지속성을 지니며 그 의미가 확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② 모성의 따뜻한 느낌은 '더운 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모성의 차가운 느낌은 확인할 수 없다.
 ③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성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성 자체의 특성으로, 그 의미가 '흙'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확장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④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을 '잘 부스러지는 살'이라 표현하고 있다. '강인함'이라는 성격과 연결하기 어렵다.
 ⑤ 연하고 단단한 성질은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이므로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와 연결하기 어렵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3회

032~033쪽

07 ④ 08 ① 09 ③

- 07 ㉔에서는 '단풍잎 → 하늘 → 파란 물감 → 손바닥 → 맑은 강물'로 시어(구)를 연쇄·반복하여 시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㉔에서도 역시 '계단 → 창문(들) → 바다'로 시어를 연쇄·반복하여 시상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㉔와 ㉔에서 반복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㉔는 '-나'라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 ㉔는 '-니', '-구나'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㉔에서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㉔는 시적 대상인 '나무'를 '너'라고 부르며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너'에게 말을 건네며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너'는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미래보다는 현재 상황과 모습에 주목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㉔에서는 '하늘 → 눈썹 → 손바닥 → 강물 → 순이'로 시선을 이동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장소가 지닌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㉔에서는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08 '소년'은 ㉔ '하늘'을 보다가 하늘의 파란 물감이 묻어난 손바닥의 손금을 보며 '사랑처럼 슬픈'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㉔은 '소년'에게 '순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②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에서 소년과 자연물인 ㉔ '하늘'이 동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㉔은 '소년'이 거부하고자 하는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③ ㉔에서 '소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음으로 ㉔ '하늘'은 '소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④ ㉔에는 '너'가 현재 바람을 만나 흔들리고 있는 모습만 드러날 뿐이므로 ㉔ '바다'가 '너'가 처한 긍정적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너'에게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이라고 가정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㉔은 '너'가 지향할 것이라고 화자가 가정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⑤ ㉔에서 '너'의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음으로 ㉔ '바다'가 '너'의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09 ㉔에서 화자는 '나무'인 '너'에게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묻고 '의자', '책상' 등 '나무'가 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줌 재'는 '그 무엇도 되지 못한' '장작'이 불에 탄 결과이므로, '나무'가 꿈을 수 있는 꿈이 아니라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모답 풀이

- ① ㉔에서 '소년'은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고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드는데, 이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년'이 자연물인 '하늘'에 동화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㉔에서 '소년'은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을 지닌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고 하였다. 이는 '순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소년'의 내면에서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연상되는 것이므로 '맑은 강물'에 어린 얼굴에는 현재 곁에 없는 '순이'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㉔의 '장작'은 '그 무엇도 되지 못한' 것으로 '장작'이 '한 줌 재가 되'는 상황은 '나무'인 '너'의 꿈이 좌절된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누군가의 꿈을 데워' 줄 수 있다는 대상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즉 화자는 꿈이 좌절된 상황에서 새로운 존재 가치를 발견하여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㉔에서 화자는 '너'에게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람을 만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 바로 '너'라고 현재 상황과 모습에 주목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 소리'는 '너'가 '지금 바람을 만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음과 이어지므로, '너'에게 '지금'의 상황과 모습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II 산문 문학 소설

+ 개념 확인하기

036~039쪽

- 1 주제 2 배경 3 ②, ⑤ 4 심리 5 태도 6 ○
7 ○ 8 절정 9 ○ 10 X 11 ○ 12 ○
13 ⑤ 14 ③ 15 1인칭 주인공 16 작가 관찰자
17 1인칭 관찰자 18 전지적 작가 19 (1) ⑥ (2) ③ (3) ④
20 ○ 21 ○ 22 ○ 23 X 24 X

DAY
05

05 엽박자 D 1 내신 물리기

040~041쪽

- 01 ② 02 ④ 03 ③ 04 ③

엽박자 D - 김중혁

해제 이 작품은 합창단 단장이면서도 ‘음치’이자 ‘박치’였던 ‘엽박자 D’를 주인공으로 하여 남들과 다른 차이를 보이는 사람을 억압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음치’로 상징되는 소외되는 이들이 가진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합창 공연을 망친 일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엽박자 D’가 20년이 지난 후 자신이 기획한 공연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

특징 • 합창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 1인칭 관찰자로 등장하는 서술자가 독자의 성찰을 유도함.

전체 줄거리

발단 공연 기획자로 일하는 ‘나’는 공연 영상 편집 과정에서 ‘엽박자 D’를 발견하고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엽박자 D’에게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전개 무성 영화 전문가가 된 ‘엽박자 D’는 공연 기획자인 ‘나’에게 ‘더블더빙’ 공연의 보조 기획자로 일할 것을 제안했고, ‘나’는 ‘엽박자 D’의 부탁으로 합창단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한다.

위기 ‘나’와 ‘엽박자 D’가 준비한 공연이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관객들은 엽박자 연주에 호응한다.

절정 앙코르 공연 순서에 ‘엽박자 D’가 ‘나’ 몰래 준비한 음치들의 합창에 관객 모두가 감동을 받는다.

결말 ‘나’와 친구들은 음치들의 노래소리에 맞춰 립싱크를 한다.

01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과거 고등학교 시절 ‘엽박자 D’와 합창단 활동을 했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발단-①’에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와 같은 외양 묘사를 통해 ‘엽박자 D’의 목소리가 합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것이 중심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에서는 주변 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인 ‘엽박자 D’를 관찰하여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④ 음악 선생과 ‘엽박자 D’를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제시된 장면에서는 두 인물 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중심인물인 ‘엽박자 D’는 합창단 단장이 되어 열성적으로 합창단 활동에 참여하는 순수하고 음악에 열정이 있는 인물로, 이 글에서 성격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2 ‘발단-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엽박자 D’를 제외한 합창단원들은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합창단에 들어와 자습에 몰두했으며, 축제 한 달 전이 되어야 축제 때 부를 노래를 1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정하고, 그다음 주가 되어야 연습을 시작했다.

모답 풀이

- ① ‘발단-①’에서 ‘나’는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 각자의 공부를 했다.’고 하였다.
② ‘발단-①’에서 합창단원들이 1분도 걸리지 않아 정한 축제 때 부를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로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나 심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고 하였다. 또 음악 선생이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고 한 것을 통해서도 축제 때 부를 발라드 곡이 연습이 많이 필요한 노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발단-①’의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다섯 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를 통해 합창단원들이 노래를 부를 때 ‘엽박자 D’의 목소리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발단-②’에서 ‘나’는 ‘엽박자 D’가 혼자 부르는 노래는 들어 줄 만했으며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03 ‘발단-②’를 통해 음악 선생은 ‘엽박자 D’의 노래를 듣고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답을 말해 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발단-②’에서 ‘엽박자 D’는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이유로 음악 선생의 사진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② ‘발단-②’를 통해 음악 선생이 ‘엽박자 D’에게 축제 무대에서 합창을 할 때 소리 내지 말고 입만 벌고뽀뽀하라고 지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발단-②’에서 ‘나’는 ‘엽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났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고 하였다.
⑤ ‘발단-①’에서 ‘나’는 합창을 하기로 정한 발라드 곡이 합창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노래라고 하였다.

04 ‘엽박자 D’를 제외한 합창 단원들은 합창단에서 자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합창단에 들어왔다. ‘나’를 포함한 합창단 아이들은 음악실에 앉아 공부를 하였고, ‘나’는 음악실 의자의 보조 책상에 엎드려 밀린 잠을 보충하기도 했다.

01 ‘엿박자 D’는 20년 전 합창단에서 축제 때 불렀던 노래를 22명의 음치들의 목소리로 믹싱하여 더블더빙의 앙코르 공연에서 들려주었다. 이 노래를 들은 관객들은 후렴을 따라 부르는 등 노래에 감동한 모습을 보였다.

오답 풀이

- ① ‘절정-①’에서 ‘나’는 앙코르 공연으로 미리 준비해 둔 더블더빙의 최고 히트곡이 아닌 음악 소리가 들리자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사운드를 체크해 보라고 하였다.
- ③ ‘결말-①’에서 앉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 ④ ‘절정-①’에서 더블더빙은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연주를 멈췄는데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라는 ‘나’의 서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 ⑤ ‘절정-①’에서 ‘엿박자 D’는 다른 곡이 나와 당황해하는 ‘나’에게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라고 말하였다.

02 ㉠에서 ‘나’와 친구들이 립싱크를 하는 것은 ‘엿박자 D’가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받은 감동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노래 부르는 방식의 변화를 피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은 ‘나’와 친구들이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합창을 들으면서 받은 감동을 드러내는 것이지 과거의 상처와 음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엿박자 D’의 모습에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 ③ ㉠은 합창 단원으로 활동했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음치들의 합창을 방해하지 않도록 입으로만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 ④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 공연에서 음악 선생의 강압에 ‘엿박자 D’만 립싱크를 해야 했다. ㉠에서 ‘나’와 친구들이 립싱크를 하는 것은 과거 확립성을 강요당했던 ‘엿박자 D’에 대한 미안함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와 친구들은 ‘엿박자 D’가 준비한 공연을 들으며 ‘엿박자’ 즉, 서로의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드러내는 의미로 립싱크를 하고 있다.

03 ‘엿박자 D’의 목소리로 합창에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나’가 ‘엿박자 D’로 인해 실력을 뽐낼 수 없었음에 불만을 가졌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나’가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은 ‘엿박자 D’가 준비한 음치들의 합창을 듣고 서로 다른 음과 박자로 부르는 노래도 조화롭고 아름답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 ② ‘엿박자 D’는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축제에서 음악 선생의 지시를 어기고 노래를 불렀다가 상처를 받았다. 더블더빙의 공연에서 20년 전의 그 노래를 음치들의 노래로 믹싱하여 아름답게 들려줌으로써 그때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다.
- ③ ‘엿박자 D’는 공연에서 친구들을 위해 과거 고등학교 시절 축제에서 불렀던 노래를 음치들의 목소리로 리믹스하여 들려준다. 이 음치들의 합창은 서로 다른 개인이 모여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엿박자 D’의 생각을 보여 준다.

④ 음치들의 합창을 들으며 ‘나’는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마치 화음 같았고 노래가 아름다웠다고 말한다. 관객들 또한 음치들의 노래를 부르며 아무도 웃지 않고 몇몇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음치들의 노래에 관객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차이와 다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내 분실_김초엽

해제 이 작품은 과학 소설로, 죽은 이의 기억을 데이터로 저장한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인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에서 분실이 되자,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엄마의 유품을 살펴보면서 엄마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다.

주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던 엄마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

- 특징**
-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이 전개됨.
 - ‘마인드 업로딩’과 같은 미래의 과학 기술을 소재로 함.

전체 줄거리

발단 지민은 엄마 사후 처음으로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러 가지만, 엄마의 마인드가 관내 분실된 상태였다.

전개 지민은 자신을 낳은 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엄마와 갈등을 겪은 지난날을 떠올린다.

위기 엄마의 마인드를 찾던 지민은 엄마가 과거에 책 표지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자신의 출생으로 일을 그만두고 세상에서 고립되어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절정 지민은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엄마의 불안을 이해하게 되고, 엄마의 이름이 적힌 책을 도서관으로 가져가 엄마의 마인드를 찾는다.

결말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한 지민은 엄마를 이해한다고 말하며 엄마와 화해한다.

01 이 글에서 서술자는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지민’의 관점에서 내면을 드러내고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설명이다.

02 '발단-②'에서 마인드에 이식된 사람들의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발단-①'에서 도서관 중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전산화되었으며, 지금의 도서관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곳이라고 하였다.
- ② '발단-②'에서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였다.
- ③ '발단-①'에서 도서관에는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 ⑤ '발단-①'에서 도서관에서는 마인드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고 하였다.

03 ㉠은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에 등록되었다는 의미이다. 엄마의 사망 원인이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모답 풀이

- ② 지민이 죽은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지민과 엄마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 ③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지기 전에 엄마의 마인드를 찾지 않은 지민의 후회가 드러난다.
- ④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한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지민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관내 분실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DAY 06 관내 분실 2 내신 물리기 046~047쪽
01 ④ 02 ④ 03 ③

01 이 글에서 갈등하고 있는 대상은 지민과, 지민의 엄마인 은하이다. 지민은 우울증을 앓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여 엄마와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갈등은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엄마의 유품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몰랐던 엄마 생전의 삶을 알게 되고, 엄마에게 공감하며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해소된다.

02 지민의 엄마인 은하가 가족들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랐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모답 풀이

- ①, ③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과거에 은하가 책 표지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과, 지민을 출산한 후 일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결말-①'에서 은하가 사랑했던 것들과 은하의 삶을 구성했던 것들로 채워진 '작은 서재'의 책상 한쪽에 지민과 유민의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통해 은하가 지민과 유민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결말-①'에서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작품에서는 죽음 이후의 망자의 마음 혹은 정신 작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컴퓨터나 인터넷 데이터로 전송하는 가상의 기술인 '마인드 업로딩'이 등장한다. 이러한 기술은 이 작품에서 현재의 지민과 죽은 엄마가 화해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로 보아 이 글은 과학 기술의 긍정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도서관은 고인의 마인드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다.
- ②, ⑤ 작가는 주인공이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인드 업로딩'이란 과학 기술을 만들어 내었다.
- ④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하여 지민이 엄마와 화해하는 모습에서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DAY 07 돌다리 1 내신 물리기 048~049쪽
01 ⑤ 02 ③ 03 ① 04 ①

돌다리_이태준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와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창섭의 갈등을 다루면서 '돌다리'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땅에 대한 가치 인식을 촉구하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주제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 특징**
- 아버지와 아들이 지닌 가치관의 대립이 두드러짐.
 - 상징적 소재를 통해 등장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냄.

전체 줄거리

발단 창섭은 누이가 병으로 죽자, 의사가 될 것을 다짐하고 서울에서 저명한 의사가 된다.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러 고향에 온다.

전개 창섭은 고향으로 들어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와 마주친다.

위기 창섭은 아버지에게 땅을 팔고 서울로 올라가자고 제안하고,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에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을 미룬다.

절정 아버지는 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창섭은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한다.

결말 아버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창섭을 받아들이며, 돌다리에서 자연의 이치대로 살 것을 다짐한다.

01 창섭은 땅을 팔아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므로 땅을 파는 것에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볼 수 없다.

모답 풀이

- ①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병원에 환자가 늘어 입원실이 부족한데 큰 건물을 새로 짓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금 시국(일제 강점기)에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값이 싸고 병원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건물이 나왔다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창섭은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점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 중 서울에 살면 생활이 편리하다거나, 서울에 살면서 시골의 농토 관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답 풀이

- ① '돈만 있으면 땅은 이대여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교통 편한 자리에 값이 비싸지 않고 병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건물이 있다고 말하였다.
- ④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나무다리가 있으니 돌다리를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창섭에게 아버지는 돌다리에 얹힌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나무다리보다 돌다리가 더 낫고, 그런 돌다리에 인정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지켜야 할 전통적 가치를 상징하며, 소중한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②, ④ 아버지가 생각하는 '나무다리'의 의미로 볼 수 있다.
- ③ '돌다리'와 관련한 민족 수난의 역사는 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창섭이 생각할 법한 '돌다리'의 의미에 가깝다.

04 창섭이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하여 아버지가 땅을 팔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과는 거리가 멀다.

모답 풀이

- ② 창섭의 제안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에서 아버지가 신중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③ 어렵게 돌다리를 고칠 필요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무다리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리성,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창섭의 가치관을 보여 준다.
- ④ 돌다리에 담겨 있는 가족의 추억과 역사를 이야기하며 자신이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너서 묻으라고 말하는 모습은 돌다리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이 깊음을 보여 준다.
- ⑤ 아버지는 땅을 팔아 병원 확장을 하고 싶으며,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싶다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며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돌다리 2

내신 올리기

050~051쪽

01 ⑤

02 ④

03 ⑤

01 이 글의 등장인물은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세대를 대표하는 아버지와,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세대를 대표하는 창섭이다. 따라서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은 창섭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러 고향인 농촌 마을로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② 이 글에서는 실감 나는 방언으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건을 비롯해 인물의 심리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작가의 서술(직접적 제시)과 대화(간접적 제시)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 글은 땅을 단순히 금전적, 환전적 가치를 지닌 물질적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창섭과 땅에 대한 애착과 신념이 강한 아버지의 가치관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아버지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아버지의 인식과 가치관은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하려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후에 아들이 서울에서 지주 노릇만 하는 것보다는 땅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므로, 아들이 땅을 관리해 주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어머니는 서울에 가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옆에서 듣고는 아버지 고집이 여간 아니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적절한 말이다.
- ② 창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하며 존경을 표현하였다.
- ③ 창섭은 아버지와 땅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에서 아버지와 자신의 세계가 격리되는 결별의 심사를 체험했다고 하였다.
- ⑤ 아버지는 병원을 확장하려는 창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땅을 팔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다.

03 아버지는 땅을 팔게 된다면 느리지는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것을 한하지 않겠다고 한 용문이나 독시장발을 내놓기만 한다면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밭을 사려고 할 문보나 덕길이는 같은 사람에게 팔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용문이나 문보, 덕길이는 땅에 대해 창섭이 아닌 아버지와 비슷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땅에 대해 강한 애정과 사랑을 보이고 있으므로 땅에 대한 토포필리아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아버지는 자신의 논과 밭을 단순히 이익을 내는 자원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가꿔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③ 창섭은 논을 병원 확장을 위해서 팔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고향 땅에 대해 정이나 사랑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작가는 이 글을 통해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전통적 가치가 경시되면서 실용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세대를 비판하고 있다. <보기>에서 토포필리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는데, 고향 땅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진 아버지와 고향 땅에 대해 애착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창섭의 태도 차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토포필리아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미스터 방 ① 내신 올리기

052~053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②

미스터 방_채만식

해제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방삼복이라는 기회주의적 인물이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당대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방삼복이 미군의 통역관 '미스터 방'이 된 이후 권세를 누리며 자기 과시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통해 해방 직후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주제 광복 직후의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한 풍자

특징 •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드러냄.
• 판소리 사설 문체를 사용함.

전체 줄거리

수목부분

발단 방삼복은 고향 사람인 백 주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자신의 달라진 위상을 과시한다. 광복 전에 백 주사는 친일파로 권력과 부를 쌓았고, 방삼복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십여 년을 일본, 중국 상해로 떠돌고 돌아와 신기료장수를 하던 처지였다.

전개 방삼복은 미군 장교 S 소위의 통역을 해 준 것을 계기로 그의 통역관이 되어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

위기 친일 행각을 하다가 해방이 되자 몰락한 백 주사가 미스터 방에게 보복을 부탁하고 방삼복은 이에 흔쾌히 응한다.

수목부분

결정·결말 술을 마시면 양치를 하는 버릇이 있는 방삼복이 양치 물을 뱉는 순간, 공공로게도 S 소위가 양치물을 맞는다. S 소위는 방삼복을 욕하며 그의 턱을 때린다.

01 방삼복은 신기료장수 일을 하다가 미군의 통역을 해 주면서 출세하게 된다. 이때 호칭이 '코뿔이 삼복이'에서 '미스터 방'으로 바뀌는데 이를 통해 지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이 작품은 광복 후, 기회주의적 처세를 보인 '방삼복'이란 인물에 대한 풍자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방삼복을 '코뿔이 삼복이'라고 칭하는 등 방삼복의 모습을 희화화하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이 글은 광복 직후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러한 배경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 이 글에는 서술자가 직접 방삼복의 과거를 요약하여 전달해 주고 있다.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과거의 사건이 전달되고 있지는 않다.
- 백 주사가 방삼복의 과거를 떠올리기는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거에 백 주사와 방삼복 간의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먹고 자고 꿈꾸 일하고, 자식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는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그러나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던 코뿔이 삼복이었다. 물론 낮 놓고 기억 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에서 방삼복이 공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그 아버지가 짚신 장수였다. 칠십에,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 있지만, 시방도 짚신 곁에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 첨지가 바로 그였다.'에서 방삼복의 아버지가 짚신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불과 몇 달기간에 이렇게 훌륭히 되고, 부자가 되고, 미씨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갖은 호강 다 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에서 방삼복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어 호강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를 통해 방삼복이 상해에서 돌아와 구두방에서 구두 직공으로 일했으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수탈로 가죽이 동이 나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돈벌이를 간담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게다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 버렸다.'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을 두고 고국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떠난 지 칠팔 년을 별반 신통한 벌로도 못하느니, 돈 한 톨 보내는 싹도 없더니', '별로이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해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꿰어진 구두짝을 꿴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뺨아 다린 무명 고의적삼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를 통해 고국을 떠나 있는 동안에 돈을 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03 백 주사는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라고 생각하며 미스터 방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방삼복에 대한 복잡한 심리와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방삼복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04 작가는 인물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통해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그 틈을 타 기회주의자나 아부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미스터 방 ② 내신 올리기

054~055쪽

01 ② 02 ② 03 ⑤

01 백 주사는 복수를 청탁하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뿐, 수락의 대가로 방삼복에게 재산을 맡기고 있지는 않다.

모답 풀이

- 백 주사는 광복 전에 친일 행위를 해서 돈을 벌고 광복 후에는 군중들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미스터 방이 된 방삼복에게 아첨하고 비굴하게 행동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백 주사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백 주사는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구섬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귀수놈들일랑 목을 썰어 죽이구, 다른 놈들일랑 뺨다구가 부러지두록 두들겨 주구, 꿇어앉히구 항복받구"라고 말하며 자신의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에서 백 주사가 방삼복의 권세를 이용해 빼앗긴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에서 과거와 달라진 방삼복에 대해 백 주사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다.

02 백 주사는 미스터 방에게 아침하고 있을 뿐, 이 글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모답 풀이

- ① 미스터 방이 뺨은 양치목이 S 소위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 S 소위가 화가 나서 욕을 하며 미스터 방의 턱을 날리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미스터 방의 상황이 우연으로 인해 반전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④ 이 장면은 미완성의 결말이지만 부정적 인물인 미스터 방의 몰락을 예상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미스터 방이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부와 권세가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⑤ 이 장면은 미스터 방의 몰락을 해학적으로 그린 것으로, 미스터 방이 양치목을 S 소위에게 뺨을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03 백 주사는 방삼복의 권력을 이용해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복수를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가 방삼복을 '미씨다 방'으로 부르는 것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방삼복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다.

모답 풀이

- ① 방삼복은 해방 이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인 S 소위의 통역관이 되어 별안간 부와 권력을 얻는다. '광복 이후 미군정이 새 지배 권력이 되면서 미군을 등에 업은 계층'이 등장하는데, 방삼복이란 인물이 그 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백 주사는 방삼복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재물을 도로 찾아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방삼복은 "기관총 들면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발을 만들어 놉니다, 쑥발을"이라고 말하며 허세를 부린다. 이때 '쑥발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방삼복이 미군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횡포를 부리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방삼복은 새 지배 권력인 미군에 기생하고, 백 주사는 그런 방삼복에게 기생하는 계층으로 볼 수 있다.
- ④ 백 주사는 방삼복의 위세를 이용하여 재산을 다시 되찾으려 하는 인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굴한 처신도 개의치 않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알아두기

◆ 작품 속 시대적 배경과 인물상

채만식의 「미스터 방」은 광복 직후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부정한 인물의 삶을 해학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해방 전에는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가다가 S 소위와 같이 작은 권력이라도 쥐게 되면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과시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 일제라는 과거의 권력에 붙어 있다가 시대가 바뀌자 한순간에 몰락한 사람, 능력보다는 행운이나 요행을 좇아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작가 특유의 냉소적, 반어적, 해학적 표현을 통해 부정한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눈길 1 내신 물리기

056~057쪽

01 ⑤ 02 ④ 03 ③ 04 노인

눈길_이창준

해제 이 작품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적인 화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 정서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나'가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엿듣고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반성을 눈물을 흘림으로써 어머니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주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눈길에서의 추억을 통한 인간적 화해

특징 • 과거 회상과 현재 상황의 대화가 교차되며 사건이 진행된다.
•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활용해 주제를 드러냄.

전체 줄거리

발단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은 '나'는 하루 만에 떠나겠다고 말한다. 이에 어머니는 섭섭함을 표현하면서도 체념하며 '나'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

전개 '나'는 지붕 개량을 원하는 어머니를 매정하게 대하고 아내는 이를 질책한다.

위기 '나'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안 뒤 어머니에 대한 빛이 있지 않을까 초조해한다.

절정·결말 '나'는 잠결에 옛집을 떠났던 날의 심정을 회상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다. 어머니의 사연을 들은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책감에 눈을 뜨지 못한다.

01 이 글에서 '나'가 어머니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현재의 사건 속에서 과거 회상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긴박한 분위기도 드러나 있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은 일, 그 형이 세 조카아이와 아이들의 할머니까지 포함한 장남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일, 어머니가 자신이 고등학교, 대학교, 군영 3년을 치러 내는 동안 날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한 일을 밝히고 있다.
- ② 이 글의 '나'는 어머니 곁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하며 불편함과 짜증을 드러내고, 어머니는 떠나겠다는 아들에게 내심 서운함을 느낀다. 이와 같은 사건은 '나'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③ 이 글은 주인공이 고향이나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귀향 소설에 해당한다.
- ④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며 직접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02 풍년초를 꺾궂 놀려 답는 어머니의 행동에는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03 '나'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어머니에 대해 빗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을 부끄러움과 관련한 자기 평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1. 4 이 글에서 '나'는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날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 했고, 나는 또 나대로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 녀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고 하며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고 하였다.

2 이 글에서 '나'는 어머니의 경제적 도움 없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아무런 빗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

5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없으므로 자신 또한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자간의 관계를 이해타산적으로 따지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 '나'는 어머니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를 보통 명사인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알아두기

◆ 어머니에 대한 '나'의 심리적 거리

'나'는 어머니 곁을 빨리 떠나고 싶어하며,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일컫는데 이를 통해 '나'가 어머니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과 어머니 사이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따지며 갇아야 할 빗이 없다고 하는 '나'의 모습에서도 '나'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드러난다.

DAY

09

눈길 2

나신 물리기

058~059쪽

01 ㉠

02 ㉡

03 ㉢

01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 두고 차로 올라선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가 싫었고'에서 노인과 헤어진 순간에 '나'가 느낀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헤어진 순간부터 노인에게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

모답 풀이

1 '저 아그를 훌쩍 실어 담고 가 버리는구나'에서 '나'와 '노인'이 차부에서 순식간에 헤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그 몫을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에서 '노인'이 '나'의 발자국을 보면서 '나'를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3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 거라'에서 '노인'이 '나'가 몸 건강히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음을 알 수 있다.

4 '나'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고 한 부분에서 '나'가 '노인'이 홀로 돌아온 과정을 듣고 싶지 않아 했음을 알 수 있다.

02 어머니는 아들을 보낸 후 돌아오는 길을 다양한 비유(발자국, 산비둘기, 나무들)를 통해 묘사함으로써 아들에 대한 애뜻한 연민과 그리움, 사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나'는 '눈길'이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 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에게 '눈길'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인'에게 '눈길'은 아들을 떠나보낸 기억이 있는 사랑과 추억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060~061쪽

01 ㉠

02 ㉡

03 ㉢

04 ㉤

01 이 작품 전체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향을 찾아가는 창섭의 심리와 처지(땅을 팔자고 할 수밖에 없는 창섭의 처지)를 서술함. → 고향집에 도착한 창섭이 어머니와 대화하고 이를 보고 아버지가 개울에서 집으로 들어옴. → 창섭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함. → 아버지가 창섭의 이야기를 다 듣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그리고 장정들이 다릿돌을 놓고 있는 현장에 가기 위해 다시 개울로 나감. →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창섭에게 땅을 팔 수 없는 이유와 땅에 대한 신념을 밝힘.'

모답 풀이

〈중략〉 이후 사건의 발생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함(4). →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함(1). →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감(2). →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음(3). →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음(5).'

02 아버지가 완고한 성격을 지녔음을 작품 후반부 창섭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대화에서 땅에 대한 아버지의 완고한 생각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1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아버지)와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창섭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3 창섭이 '세계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세계를 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5 손자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어머니의 바람은 드러나 있으나 이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의 갈등과는 거리가 멀다.

03 [A]는 창섭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발화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고, 부모님을 모시려고 한다는 창섭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아버지의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창섭이 이해관계에 얽매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로 든 것일 뿐이다. 이를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창섭이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사려고 하는 건물에 직공들의 합숙실이 있었을 뿐, 창섭이 그들을 배려한 것은 아니다.
- ⑤ 창섭의 말투가 드러나려면 대화를 통해 장면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A]는 창섭이 한 말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창섭의 말투를 짐작할 수 없다.

04 땅을 팔아 병원을 키우려는 창섭과 서울로 가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어머니는 땅에 애착이 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모답 풀이

- ①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 즉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
- ② '넌 그 다리서 고기를 잡든 생각두 안 나니?',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등의 아버지의 말에서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추억과 애환이 담긴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③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에서 아버지가 집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가 땅에 대해 '천지만물의 근거', '조상들과 그 땅의 인연'이라고 표현한 데서 땅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이 드러난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2회

062~064쪽

05 ③ 06 ① 07 ③ 08 ⑤

05 방삼복은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로부터 서 주사가 주고 갔다는 각봉투를 열어 보고는 그 안에 든 돈이 적다며 화를 낸다. 그리고 서 주사가 큰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준 돈이 적다며 자리에 없는 그를 비난하고 자신이 미군 헌병에게 말하면 서 주사가 어떤 지경에 처할지 모른다고 위협하는 말을 한다. 방삼복이 백 주사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미군과 가까운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에 방삼복이 일을 꾸미며 상대방에게 자기의 일을 떠넘기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방삼복은 서 주사를 욕하다가 술을 정중으로 가져올지 묻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증증 따근하게 데와."라고 답하고 있다. 이 외에 방삼복과 백 주사의 대화에서도 방삼복이 질문에 대꾸하지 않아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방삼복은 서양 사람과 같이 탕던 차에서 내려서 우연히 보게 된 백 주사에게 알은체를 하였다. 이때, 동승자인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⑤ 방삼복은 자신을 알아보고도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백 주사에게 "네, 삼복입니다."라고 하며 먼저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방삼복은 출세를 해 신수가 휠해진 모습이었고 말도 의젓해진 것 같았다고 했으므로 방삼복이 이름을 먼저 말한 행동을 통해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06 ㉠은 자신이 미군 헌병에게 말하면 서 주사를 곤경에 빠트릴 수 있다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미군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방삼복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은 일제 강점기에 백선봉이 순사로 일하며 재물을 모았다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일제의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백선봉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모답 풀이

- ② ㉠에는 미군과 방삼복, ㉡에는 일제와 백선봉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과 ㉡ 모두에서 외세와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뒤집힌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에는 방삼복이 미군에게 부탁하여 타인을 곤경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에는 백선봉이 순사로써 누린 이익이 나타나 있으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에서 방삼복은 미군과 자신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을 뿐 권력을 향한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에서는 백선봉이 일제 강점기 순사로써 누린 이익이 나타날 뿐 권력에 의해 좌절감을 느끼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에서 방삼복이 자신이 미군에 부탁하면 서 주사를 곤경에 빠트릴 수 있다고 한 것을 통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방삼복의 확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는 백선봉이 순사로써 이익을 누린 모습이 나타날 뿐, 권위가 추락한 모습이나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07 ㉢은 과거 신기료장수였던 방삼복이 재력이 대단해 보이고 신수가 현히 트인 모습을 본 백 주사의 반응이다. 뒤이어 백 주사가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모답 풀이

- ① ㉡는 군중에 의해 집과 세간이 부서지고 재물을 모두 빼앗긴 백 주사가 빼앗긴 돈과 물건을 되찾을 궁리를 했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백 주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처지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는 '신기료장수를 하던 코빼뿔이 삼복이'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자신의 집에 가자는 방삼복에게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따라갔다는 것으로, 백 주사가 열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에서 백 주사는 출세하여 신수가 휠해진 방삼복과 반대로, 몰락하여 초라한 모습이 된 자신의 처지에 어깨가 움츠러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주눅이 든 백 주사의 심리를 알 수 있다.

⑤ ㉔에서 백 주사는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에게 반감이 들어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을 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참고 있는데, 이는 세도를 부리는 듯한 방삼복의 힘을 빌려 자신의 분풀이를 하고 빼앗긴 재물을 되찾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08 [E]에는 백 주사네 집이 습격을 당해 집과 세간이 부수어지고 재물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매를 맞고 각기 피신하는 등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이 그려져 있다. 이는 서술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제시한 부분으로, 백 주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일관되게 초점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백 주사의 시선에서 초점화된 서술은 백 주사가 방삼복을 만나게 된 상황과 백 주사의 심리를 드러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A]에서는 광에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여 있고 끼니마다 고기와 생선이 상에 오르는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과, '남들'의 굶주린 생활을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일제 순사로 일하며 일제의 권력에 기대어 부를 누린 백선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 ② [B]에는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들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다. 이는 백선봉이 순사로 일하며 부정하게 모은 물건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군중이 이 물건들을 고집어내는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 ③ [C]에서 '있었더라'는 '~라고 한다'가 줄어든 '~란다'를 활용해 [B]에서 군중이 목격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고 있다. 또한 '만 원어치 ~ 고만두고 말이었다.'를 통해 군중의 시선에서 초점화된 서술로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
- ④ [D]에서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 고리대금을 하고 하얏대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가 백 주사의 집이 습격당한 사건이 백 주사의 그간의 행동 때문이라고 느끼게 하고 있다.

10 ㉔은 노인에게 아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제대로 아들을 뒷바라지하지 못하게 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들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모답 풀이

- ①, ②, ③ 모두 아들과 노인이 함께 걸어가며 남긴 발자국이다.
- ④ '똥쓸'이라는 말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 죄책감 등의 감정이 직접 드러나 있다.

11 <보기>는 만물을 비추는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햇살에 노인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된 옛집에서 아들을 하룻밤 재우고 객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햇살에 비추어 보면서, 노인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노인이 차마 동네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아내는 갈 곳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노인은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다고 대답했다.
- ② 노인이 슬퍼한 이유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아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③ 어머니는 자신이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 ④ 아들이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노인의 감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3회

064~065쪽

09 ② 10 ⑤ 11 ⑤

09 노인('나'의 어머니)은 홀로 눈길을 되돌아오던 날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아내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을 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어머니의 이야기는 모두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로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고 있다.
- ③ 노인이 있는 시간에 노인이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외부 상황과 관련되어 떠오르는 노인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의 서술자는 '나'로 이 부분에서는 노인의 이야기를 엿듣는 '나'의 시선을 통해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III 산문 문학_극, 수필

+ 개념 확인하기

068~069쪽

- 1 ○ 2 × 3 ④ 4 영화 5 시공간, 인물 6 ×
7 ○ 8 × 9 중수필 10 서사적 11 현재 12 관점

DAY

10

결혼 1

내신 올리기

070~071쪽

01 ⑤

02 ②

03 ③

결혼_이강백

해제 이 작품은 한 남녀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 소유와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 고찰한 희곡이다. 풍자적 상황 설정을 통해 현대인의 소유 관념을 비판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역설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관객의 소유물을 연극의 소품으로 활용하고, 이야기책 속 사건을 극의 현실로 바꾸어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실험적인 기법이 나타나고 있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특징 •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이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짐.

전체 줄거리

발단 가난한 사기꾼인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빌린 후, 맞선을 보기로 한 여자를 기다린다.

전개 초조한 기다림 끝에 남자는 여자를 만난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제한된 시간이 다 되자 남자는 자신이 빌린 물건을 하인에게 하나씩 빼앗긴다.

위기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한다. 그러나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게 된 여자는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한다.

절정 남자는 소유의 본질과 헌신적 사랑의 중요성을 여자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며 여자를 설득한다.

하강·대단원 여자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함께 결혼을 하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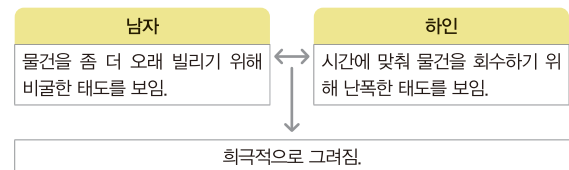
01 이 글에서 하인은 남자에게 빌려준 물건을 빼앗으며 남자와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하인은 일반적인 하인의 행동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 작품에 희극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모답 풀이

- 하인은 남자에게 빌려준 물건들을 빼앗으며 남자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만 이는 처음에 남자가 물건을 빌릴 때 약속한 시간에 따라 빌려준 물건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상황을 왜곡하거나 남자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볼 수 없다.
- 하인은 남자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부추기지는 않는다.
- 하인은 남자와 여자의 화해를 유도하고 있지 않다.
- 남자가 하인에게 넥타이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여자가 놀라기는 하지만 하인은 빌려준 물건을 회수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일 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다.

알아두기

* '남자'와 '하인'의 갈등 양상



하인은 물건을 회수할 때 난폭한 태도를 보이며 남자의 애절한 부탁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하인은 순종적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어긋나기에 작품에 희극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02 이 글에서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걸며 관객의 넥타이를 빌려 소품으로 사용한다. 그 과정에서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관객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모답 풀이

- 관객에게 빌린 넥타이가 작품의 소품으로 사용될 뿐, 관객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 이 글에서는 남자가 방백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을 뿐, 별도의 해설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03 〈보기〉를 통해 이 작품은 소극장에 모인 사람들(관객)에게 소도구를 빌려야 하므로 관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객과의 소통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보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도구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서이다.
- 〈보기〉에서는 인물의 대사를 관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작가의 의도를 말하고 있지 않다.
- 〈보기〉에서는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조명의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이 연극의 무대를 설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 〈보기〉에서는 무대 배경을 관객들에게 사실적으로 보이고자 한다는 작가의 의도를 말하고 있지 않다.



결론 2 내신 물리기

072~073쪽

01 ② 02 ⑤ 03 ②

01 이 작품에서 ‘덤’ 이야기는 남자가 소유의 본질을 깨달아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주제 의식(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다.

모답 풀이

- ① 여자의 ‘덤’ 이야기 전에 나타나는 인물 간의 갈등은 남자와 하인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는데 ‘덤’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 ③ ‘덤’ 이야기는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다. 등장인물의 이중성을 풍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여자가 ‘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투는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화해를 유도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덤’은 여자의 어렸을 때 별명으로, 남자는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덤’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깨달아 여자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므로 현재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2 남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므로, 여자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덤으로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여자는 이러한 남자의 말에 설득되어 청혼을 받아들였다.

모답 풀이

- ① 여자가 남자에게 신세를 진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② 여자의 어머니가 사기꾼인 아버지와 결혼했고, 여자가 어머니에게 사기꾼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통해 볼 때 여자가 어머니의 삶을 동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진정한 소유란 없고, 모든 것은 빌린 것이므로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남자의 깨달음에 설득된 여자가, 남자를 소유의 관점으로 대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이 글에서 여자가 남자의 단점을 인식하고, 그 단점을 고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이 작품에는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게 된 여자가 남자의 청혼에 대해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나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몫을 좀 더 챙기기 위해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답 풀이

- ① 남자는 선을 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빌렸고, 이러한 행동은 남자가 결혼의 조건으로 소유의 정도를 따지는 세속적 통념을 지녔음을 알게 한다.
- ③, ④ 남자는 자연물과 함께 여자도 잠시 빌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대상을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하겠다는 소유욕에서 벗어난 생각으로 볼 수 있다.
- ⑤ 여자가 세상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고 자신을 덤으로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남자의 말에 설득되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내신 물리기

074~075쪽

01 ① 02 ① 03 ②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검침회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지인과의 대화,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점을 서술한 수필이다. 작가는 지인과 한의원에 대해 나누는 대화, 사회에서 겪은 다양한 불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의를 믿지 못하는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타인의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선의를 신뢰하는 힘을 깨닫고 있다.

주제 선의를 믿는 힘의 소중함

특징 일상의 사소한 경험에서 주제 의식을 이끌어 냄.

한눈에 보기

경험 1	경험 2
글쓴이가 다니는 한의원은 여간해서는 약을 지어 주지 않는 곳인데 이에 지인들은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함.	조카가 유치원 통학 버스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고 기뻐했지만, 사실은 선생님께 지적과 당부를 들은 것을 알게 됨.
↓	↓
깨달음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음.	깨달음 조카에게는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이 있으며, 그러한 힘을 지닌 조카의 세상이 글쓴이의 세상보다 단단함.

01 이 글에서 글쓴이는 타인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거나 정당하다는 뜻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모답 풀이

- ② ‘가운데 1’에서 글쓴이는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에는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며 그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처음’에 글쓴이는 처방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는 한의원의 원칙이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가운데 1’에서 글쓴이는 타인을 의심하는 게 당연해진 세상에서는 음모론적 시각이 현실 판단의 기준이 되며,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 ⑤ ‘끝’에서 글쓴이는 선생님께 훈이 낚음에도 조카가 즐거워한 것은 조카가 선생님의 말을 지적과 당부가 아닌 선의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02 글쓴이는 끝부분에서, 타인의 선의를 믿고 신뢰하는 조카가 쥐고 있는 세상이 자신의 것보다 더 크고 단단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선의를 믿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② '가운데 1-②'에서 선의를 믿음으로써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라 이를 그저 탓할 수만도 없다고 하였다.
 ③, ④, 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선의를 믿게 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03 수필은 특별히 정해진 형식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는 글이다. 이 글의 구성 단계를 '처음-가운데-끝'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수필이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글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의 글쓴이가 한의원이나 조카와 관련된 사례에서 선의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데서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이 글에서 글쓴이가 조카와의 일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선의를 믿는 힘의 가치를 깨닫는 부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다.'와 같이 선의를 믿기 어려운 사회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서술한 것에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솔직하게 표현되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DAY

12

화단 내신 물리기

076~077쪽

01 ⑤
02 ④
03 ①

화단_이태준

해제 이 작품은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철사로 엮고 가지를 자르면서 인공적인 화단 가꾸기에 몰두하는 노인을 비판하며, 자연은 그대로의 것이 아름답다는 글쓴이의 자연관을 드러내는 수필이다. 경험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으며, 예스러운 어투와 생동감 있는 의태어를 사용하는 데에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

주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추구

- 특징**
- 예스러운 어투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개성적으로 표현함.
 - 대상 간의 대비를 통해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

한눈에 보기

화초를 대하는 노인의 모습	
석류나무	철사로 층층이 테를 두르고 겉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함.
장미	홍예문같이 틀어 올림.
복숭아나무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나무에 열매를 도닥도닥 맺히게 함.
봉선화	구석 응달 밑에 두고 보살피지 않음.

↓

노인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글쓴이의 가치관
정성스럽게 가꾸면서도 화초를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노인의 태도에 불유쾌를 느낌.	자연에 있는 그대로, 그 자체의 가치로 인정해야 함.

01 노인은 비를 맞고 소생한 화초를 본 이후로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화초를 가꾸고 있으므로, 노인이 화초를 가꾸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2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연은 그 자체로 신의 작품이며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③ 글쓴이는 노인이 화초를 변형하는 것에 불유쾌를 느끼고 있으며, 우리는 자연을 파괴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능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⑤ 글쓴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존중하고 있을 뿐, 자연과 인간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다.

03 이 글에 글쓴이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모답 풀이

- ② '조석', '손아', '순조', '억조창생' 등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활용하는 고풍스러운 문체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벌벌', '도닥도닥'과 같이 대상의 움직임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불구', '기형', '재변'과 같은 부정적 낱말을 열거하여 노인이 인위적으로 화초를 기르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노인이 인위적으로 변형하여 가꾼 화초와 달리 글쓴이는 보살핌 없이 자란 봉선화를 더 아름답게 생각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글쓴이가 자연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078~079쪽

01 ③ 02 ⑤

01 남자의 실상을 알아차린 여자가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하자, 남자는 수궁하면서 여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사실은 잠시 빌린 것이었고 그래서 되돌려줘야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남자의 말을 들은 여자는 ㉠에서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에서 보인 여자의 행동은 남자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 실망하여 보인 행동이지 남자의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외면한 행동은 아니다.

모답 풀이

- ① 남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하인이 책을 빼앗아 버리는 모습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기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줘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남자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에서 하인이 자기의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면 이는 제한된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므로, 누구도 물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④ ㉔에서 남자는 벡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관객에게 빌렸던 벡타이를 자신이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주었음을 언급한 뒤, 여자를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남자가 관객을 증인으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여자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⑤ [A]에서 남자는 자신이 빈털터리이지만 사실 세상 모든 것은 빌린 것임을 말하며 여자를 설득하고 있다. 여자가 자신을 외면한 채 떠나갈 때에도 남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여자를 소중히 여길 것임을 약속하는데, ㉔의 행동에서 여자의 남자에 대한 연민이 드러난다.

02 <보기>에서 인물의 등퇴장은 무대 공간에서의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소유 및 결혼의 조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이 전개되므로 여자의 등장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등장은 남자와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지속시키고 있다.

모답 풀이

① 글에 제시된 남자의 대사로 보아, 남자가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행동이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남자)의 대사를 통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인물의 등퇴장은 무대 공간에서의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인은 남자에게 물건을 빌리는 데에 시간의 제한이 있음을 환기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 하인은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따라서 하인의 등퇴장은 물건을 빌린 시간을 의식하면서 그 시간 안에 여자의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자의 초조함을 고조시키고, 남자가 물건을 빌린 것을 아는 관객에게도 긴장감을 유발한다.

③ <보기>에서 작가는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하인이 남자에게 물건을 빼앗은 뒤 무대 공간을 벗어났다가 잠시 후 되돌아 오는데, 물건을 빼앗아 사라지는 하인의 행동은 굳이 그 이후의 상황까지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인이 무대 공간을 벗어나 무대에서 보여 주지 않는 공간에 있다가 되돌아온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남자는 대사를 하다가 관객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있다. 그런데 '벡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전 장면에서 남자가 이 남성 관객에게 말을 걸고 벡타이를 빌린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기>의 설명과 같이, 무대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2회

079~080쪽

03 ③ 04 ③ 05 ③

03 춘장은 편지를 운반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있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 내용은 춘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① 이 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② 망으로 보는 파수꾼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황야라고 보기 어렵다.

④ 파수꾼은 춘장과 대립하고 있으므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⑤ 중심 갈등은 '파수꾼 다'와 춘장과 의 갈등으로, 이를 통해 주제가 드러난다.

04 <보기>의 내용을 통해, 서사극은 무대 위의 연극은 연극일 뿐임을 강조하며 관객에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활용함을 알 수 있다. 해설자가 춘장이 되어 등장할 때 이러한 모습을 관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사극의 특징에 해당한다.

모답 풀이

①, ②, ④, ⑤ 무대 위의 상황을 현실의 상황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이므로 서사극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05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망루 밖 들판에는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이 있다. 그런데 실제 이리 떼가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팻말 때문에 들판에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팻말을 적절히 활용하여 팻말 뒤에 잘 익은 '딸기'를 취한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3회

080~081쪽

06 ④ 07 ⑤ 08 ②

06 글쓴이는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상징화하여 표현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체험을 상징화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시의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

모답 풀이

① '벌벌', '도덕도덕', '가득가득' 등의 의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노주인이 화단을 가꾸는 것을 소재로 하고 있다.

③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을 통해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노인이 가꾼 화단에 대해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라고 한 부분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07 '안손님'은 여자 손님을 이르는 말로 비슷한 말로는 내객, 내빈, 안손, 여객 등이 있다.

모답 풀이

① 일삼다'는 '일로 생각하고 하다.'의 의미이다.

② '어정거리다'는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다.'의 의미이다.

③ '순조'는 '일이 아무 탈 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가는 상태'의 의미이다.

④ '약이 오르다'는 '고추나 담배 따위가 잘 자라 자극적인 성분이 많아지다.'의 의미이다.

08 글쓴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연은 그것 자체로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말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읽기

+ 개념 확인하기

084~087쪽

- 1 사실적 읽기 2 재구성 3 ㉠ 4 × 5 ○ 6 ×
7 ○ 8 비판적 9 확장 10 L, C 11 읽기 방법
12 점검, 조정 13 ○ 14 × 15 (1) ㉠, (2) ㉡, (3) ㉢
16 ㉠ 17 귀납 18 타당성 19 ○ 20 ○



투표를 안 해도 될까

1 내신 올리기

088~089쪽

01 ②

02 ②

03 ㉠

투표를 안 해도 될까_손혜정

해제 이 글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논설문이다. 글쓴이는 기권이 많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투표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 투표의 가치를 서술하여 투표에 참여해야 함을 논증하고 있다.

주제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

특징 • 투표 참여율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 투표율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들어 주장의 신뢰성을 높임.
•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면서 논지를 강화함.

한눈에 보기

주장	이유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된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음.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를 해야 정치인들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임.

01 논설문을 읽을 때에는 글에 쓰인 논증 요소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글쓴이의 주장이 정당한지,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이 설득에 효과적인지 평가해야 한다. 흥미가 가는 부분 위주로 읽는 것은 논설문을 읽을 때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02 글쓴이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예상하여 제시하고 이에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주장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의 서두에서 글쓴이의 입장과 상반되는 기권당의 홍보 문구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비되는 두 이론을 함께 제시하여 논점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프랑스 한 정당 주장 인용하였고, 2022년 튀니지의 실제 투표 결과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연구 사례를 제시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투표에 대한 입장이나 투표 참여율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을 뿐 투표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글쓴이는 모두가 기권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3 글쓴이는 기권이 암묵적 동의와 같다고 하였다. <보기>의 희수와 영민 모두 투표를 하지 않았으므로,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희수와 영민이 투표 결과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글쓴이는 투표를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희수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② 희수와 영민은 기권의 의사를 표시한 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투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프랑스 기권당의 입장에서 기권 표로 인정하자고 주장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③ 글쓴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과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다르다고 하였다. 아울러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묻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희수와 영민의 행동을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프랑스 기권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에는 관심이 있으나, 출마 후보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기권표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은 영민의 표를 기권 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투표를 안 해도 될까

2 내신 올리기

090~091쪽

01 ②

02 ㉠

03 ㉠

01 이 글에서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여 투표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기존의 통념으로 보기 어려우며, 글쓴이가 이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모답 풀이

- ①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는 의미를 '이제 투표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 보자.'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③ 글쓴이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권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독자가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또한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진 우리나라의 사례를 제시하며 2대 총선 투표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02 '본론 2-②'에서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하였으므로 '투표 한 번으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는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본론 2-②'에서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 ② '결론 ①'에서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 ③ '본론 3-③'에서 투표를 하면 정치인들이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라고 하였다.
- ⑤ '본론 2-②'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말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03 ㉠에 들어갈 말은 '귀납'이다. ㉡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모든 나라가 동쪽에서 해가 뜬 것이라는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14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1 **나선 물리기** 092~093쪽

01 ⑤ 02 ② 03 ②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_최훈

해제 이 글은 동물에게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논설문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동물도 권리가 있다'를 전제로 하여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함으로써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주제 고통받지 않을 동물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

- 특징**
- 문제의식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여 독자의 반응을 유도함.
 - 비교, 나열 등의 방법을 통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한눈에 보기

주장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		
이유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 차별주의의 태도와 다르지 않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함.

01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은 동물과 인간의 욕구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모답 풀이

- ① '서론-①'에서 질문을 통해 동물의 권리에 대한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론-①'에서 동물들이 좁은 틀에 갇히거나 동물원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례로 들어 인간이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본론 1-①'에서 글쓴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었을 만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본론 1-①'에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신경 체계가 같음을 언급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동물의 욕구를 무시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대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동물 단체가 돌고래를 바다에 방생하는 것은 동물을 타고난 환경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므로,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이다.

03 이 글에서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②는 이유 2의 근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종 차별을 당연시하던 것처럼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14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2 **나선 물리기** 094~095쪽

01 ④ 02 ③ 03 ④

01 '결론-①'에서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관행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오래전부터 인간이 동물의 본능의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본론 4-①'에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르며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이를 갓난아이의 예시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② '본론 3-①'에서 간디의 말을 통해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결론-①'에서 공장식 축산, 동물원, 동물 실험을 모두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는 사례로 보았다.
- ⑤ '본론 3-①'에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에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에서 파충류는 알을 낳다는 일반적인 법칙에서 뱀은 알을 낳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바닷물도 파랗고 강물도 파랗다는 개별적인 사실에서 모든 물이 파란색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냈으므로 귀납 논증을 사용한 것이다.
- ② 엄마와 아씨의 눈이 나쁘다는 개별적인 사실에서 자녀인 나도 눈이 나쁠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냈으므로 귀납 논증을 사용한 것이다.

④ 지금까지 본 까마귀의 색깔이 검은 색이라는 개별적인 사실에서 까마귀가 검은 색의 새라는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냈으므로 귀납 논증을 사용한 것이다.

⑤ '나'와 친구인 영희와 철수가 분식을 좋아한다는 개별적인 사실에서 또래 모두가 분식을 좋아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냈으므로 귀납 논증을 사용한 것이다.

03 글쓴이는 '결론-①'에서 화장품이나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이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였으므로 동물 실험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 즉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은 비인간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③ 글쓴이는 과학자들이 밝혀 낸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토대로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낀다고 하였다.
- ⑤ 글쓴이는 화장품이나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을 비판하며 동물이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험 동물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①

내신 물리기

096~097쪽

01 ②
02 ②
03 ⑤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_장하준

해제 이 글은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논설문이다. 역사적으로 자동화가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다른 일자리들이 창출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제시하는 한편,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는 논증을 하고 있다.

주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동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특징 • 구체적 예와 전문가의 견해 등을 제시해 신뢰성, 타당성을 높임.
• 귀납 논증, 연역 논증을 사용함.

한눈에 보기

주장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		
이유		
새 일자리 창출이 자동화 과정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남.	자동화로 인해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남.	정부의 정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01 자동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예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자동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본론 1-①'에서 제임스 베슨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화 과정 자체에서 새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사례로 어떠한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본론 1-③'에서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그와 관련한 전문가의 입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본론 1-③'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⑤ 이 글에서는 문제 상황과 관련한 원리를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모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서론-①'에서, 현재까지 판단력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일인 딸기 수확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딸기를 비롯해 산딸기, 토마토, 상추와 같은 따기 힘든 작물을 수확하는 로봇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모답 풀이

- ① '서론-②'에서 자동화로 사람들이 기계가 인간의 두뇌마저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 ③, ④ '본론 1-①'에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자동화가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였다.
- ⑤ '본론 1-②'에서 자동화에 '특화된' 필요를 충족시킬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03 '농업 기계화 최후의 장벽을 정복' 한다는 것은 판단력과 섬세함이 필요하여 아직까지 기계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딸기 수확까지 가능한 로봇이 상용화됨을 의미한다.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②

내신 물리기

098~099쪽

01 ①
02 ①
03 ②

01 '본론 2-①'에서 특정 분야의 자동화가 전체 고용 규모를 감소시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하였다.

모답 풀이

- ② 자동화의 본질을 이해하면 자동화로 인해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젊은 세대의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젊은 세대들이 자동화로 인해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대부분의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은 기술 발전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였다.
- ④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특정 일자리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직장을 잃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해를 끼친다고 하였다.
- ⑤ 기계로 인해 가지고 있던 기술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사람들도 이론상으로는 재훈련을 받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기술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재훈련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였다.

02 250년 동안 끊임없이 자동화가 계속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일을 하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근거이다.

03 <보기>는 인공 지능이 이전의 농업, 제조업의 기계화와 다르게 다른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공 지능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내용은 <보기>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모답 풀이

① <보기>의 입장을 지닌 사람은 기계가 또 다른 기계(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컴퓨터 수치 제어'는 현재 표준적인 시설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다수가 된다면 이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③, ④, ⑤ <보기>의 입장을 지닌 사람은 오늘날의 자동화는 과거와 다르게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재훈련 등의 기회를 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 지능으로 대체되는 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노동자는 실업 상태에 놓일 것이므로 정부가 실업 수당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DAY 16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① **나선 물리기** 100~101쪽

01 ⑤ 02 ⑤ 03 외재 동기 04 ⑤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_장대익

해제 이 글은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내재 동기가 있는 삶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글이다. 글쓴이는 외재 동기를 유발하는 외적 보상의 단점을 제시하고, 내재 동기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내재 동기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내재 동기를 따라 사는 삶의 가치

특징 •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함.
•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내재 동기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함.

한눈에 보기

외재 동기	내재 동기
- 외적 보상을 받기 위해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을 말함. -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음.	-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을 말함. -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삶을 행복하게 함.

↓
내재 동기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

01 서론에서 대립되는 두 개념인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를 설명하고 있으나, 두 개념을 소개한 후 서로 절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답 풀이

① 동기의 개념을 소개한 후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② '그렇다면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③, ④ 외재 동기와 관련한 실험을 사례로 제시하여 외재 동기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내재 동기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02 동기에 관한 실험에 따르면, 아이들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보상이 있을 때보다 보상이 없을 때 더 빨리 풀었다. 따라서 외재 동기를 따라 사는 사람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모답 풀이

① '서론-②'에서 '칭찬'은 결국 외적 보상이라고 하였다.

② '본론 1-③'에서 외적 보상을 쫓을 경우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보상해 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고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본론 1-②'에서 만일 어떤 회사가 성과급 규정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곳이라면, 역설적으로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는 조직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④ '본론 1-③'에서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한 외적 보상이 게임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더니 나중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03 '서론-②'에서 글쓴이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에서 '칭찬'도 결국 외적 보상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고래는 외적 보상을 위해 춤을 추었으므로 고래의 행동에는 외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04 '본론 1-②'의 '어떤 회사'는 외재 동기를 위해 외적 보상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외재 동기 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인 '동기'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모답 풀이

① 외재 동기로 운영되는 회사이므로 외재 동기를 가진 직원이 많을 것이며, 이 경우 경쟁과 시기가 많은 분위기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②, ④ 성과급이라는 외재 동기로 회사가 운영되므로 점점 더 많은 성과급을 직원들이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성과급 규정을 없앤다면 직원들의 외재 동기가 저하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③ 외재 동기로 운영되는 회사이므로 연봉이라는 외적 보상을 통해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 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DAY 16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② **나선 물리기** 102~103쪽

01 ④ 02 ⑤ 03 ③

01 내재 동기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내재 동기는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삶을 행복하게 함.)를 밝히고 있으며(ㄷ), 이유에 대한 근거로 필즈상,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등 내재 동기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ㄴ). 또한 사례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예상 반론(큰 상을 받은 사람들

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특정한 사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없다(¬).

02 ㉠~㉣는 외재 동기를 유발하는 외적 보상이며, ㉤는 내재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다.

03 <보기>에서 '팬들의 반응'은 외재 동기를 유발하는 외적 보상에 해당한다. 외적 보상을 보지 못하게 막은 행동을 통해 아버지가 외재 동기보다 내재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손흥민이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DAY 1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하는가 1

나신 물리기

104~105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②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하는가-김재영

해제 이 글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논설문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초연결성이 특정 지역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연결망을 형성한다는 점과, 초연결성이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함으로써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주제 지역성을 강화하는 초연결성

특징

- 독자에게 익숙한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함.
-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임.

한눈에 보기

주장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한다.	
↓	
이유	
초연결성은 특정 지역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연결망을 형성함.	초연결성이 사람들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

01 논증하는 글을 읽을 때는 글에 쓰인 논증 요소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글쓴이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한다. 글쓴이가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진정성 있게 표현했는지 고려하며 읽는 글은 수필 갈래이다.

02 글쓴이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고 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03 이 글은 초연결 사회에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지역성을 나타내는 동네 생활권이라는 용어가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은 전 세계 인류가 소통하는 지구촌 시대가 된 이유의 예로 언급된 것 뿐이다.

04 이 글의 '서론'에서는 초연결 사회가 계속 진행되면 지역의 가치가 다른 곳으로까지 더 확장되기 때문에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모답 풀이

- 1 '서론'의 초연결성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존의 연결성을 약하게 만들'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3 '서론'에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 4 '서론'에서 초연결성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되고 공유된다고 하였다.
- 5 '본론 1-1'에서 '초연결성의 토대가 없었다면 지리적 공간을 압축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성이 부각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DAY 1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하는가 2

나신 물리기

106~107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③

01 이 글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가 논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답 풀이

- 1 이 글에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 2 이 글에서 초연결성의 개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3 이 글에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4 이 글에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글쓴이의 경험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A]에서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지역성은 능동적으로 생성되고 강화되어 간다고 반박하고 있다.

모답 풀이

- 1 글쓴이는 예상 가능한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 2 [A]가 아닌 '결론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글쓴이는 '~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등으로 예상 가능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논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 5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는 예상 가능한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03 이 글은 논증하는 글로, 논증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논증 요소의 타당성이나 논증 방법의 설득 효과와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다.

04 초연결성이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지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현상이 다른 지역 사람들 간의 초연결성을 약화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판단할 수 없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108~109쪽

01 ① 02 ④ 03 ⑤

01 1문단에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 단체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앙 정부와 대비해서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모답 풀이

- ② 이 글에서 글쓴이는 민간화와 경영화의 한계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 참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에는 간담회, 설명회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책 결정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참여, 개인들의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공동체 의식 고양, 주민의 의사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고려, 정책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⑤ 지방 자치 단체에서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화와 경영화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02 2문단에서 ㉠은 지방 자치 단체가 민간 기업이라는 외부 단체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은 지방 자치 단체가 스스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외부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 '민간화'는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 기업은 본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주민의 이익이라는 공익 추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② ㉠ '민간화'와 ㉡ '경영화'는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런데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을 때, 다시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을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③ ㉠과 ㉡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사례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 ⑤ ㉠과 ㉡은 정책 결정이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된 사례들이다.

03 4문단에서는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주민 투표 결과 찬성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는 투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결과에 불복하여 주민 간 갈등 심화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주민들은 다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투표 결과가 나왔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함으로써 주민 간 반목이 심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이 글에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기>의 사례에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 상당수의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현상이 나타났다.
- ③ 이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 그 결과 상당수의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책에 대한 결정 지연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 글에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기>에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 투표를 주민들이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이는 주민 투표 제도에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졌음을 보여 준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2회

109~110쪽

04 ③ 05 ② 06 ③

04 이 글은 1문단에서 현대의 개체화 현상이라는 화제를 제시한 뒤, 2문단에서 개체화의 가속화 추세에 대해 백과 바우만이 공통된 인식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 두 사람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한 뒤, 3문단에서는 백의 견해를, 4문단에서는 바우만의 견해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개체화 현상에 대한 백과 바우만의 견해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글임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양상들이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 ② 글쓴이는 글을 시작하면서 개체화 현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거나 이를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에서는 개체화 현상의 개념과 이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을 뿐,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가설들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 ⑤ 1문단에서 개체화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제시하거나 비교한 내용은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05 현대의 개체화 현상,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상에 대해 설명한 2문단에서,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따라 노동 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되어 계급적으로 연대하기가 어려워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③ 핵가족화와 함께 일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개인이 가족과 거주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백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는 것, 즉 현대의 개체화 현상이 오히려 초계급적, 초국가적 연대라는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바우만이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서로 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우만의 관점에서 현대의 개체화 현상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라는 추론은 적절하다.

06 ㉠의 위험 사회는 백이 현대 사회를 정의한 개념이고, ㉡의 액체 시대는 바우만이 현대 사회를 정의한 개념이다. 백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로 보면서, 3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그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인들이 계급과 국가를 초월해 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관계가 계급이나 국가라는 틀에 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본 것이다. 반면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액체 시대로 보고, 4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현대인들이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한 채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바우만은 연대와 같은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백은 현대 사회를 과거와는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체계적·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사회로 파악하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 ㉠ '위험 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 ②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로 파악하고, 이런 현대 사회의 특성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액체의 속성과 같다고 보아 현대 사회를 ㉡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 ④ 3문단에서 백이 현대 사회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의 위험이 체계적이고 항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위험 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에서 바우만이 정의한 액체 시대라는 개념에는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이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재난과 같은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에서 백이 생각한 위험은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이 정의한 위험 국가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4문단에서는 바우만의 액체 시대라는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이 항시적으로 존재함을 내포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3회

110~111쪽

07 ② 08 ⑤

07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 갑은 3순위인 경찰서 대신 2순위인 학교에 투표할 것이고, 을은 1순위인 학교, 병은 1순위인 경찰서에 투표할 것이므로, 학교가 채택될 것이다. 이후에는 학교와 병원이 최종 투표에 부쳐지는데, 갑은 1순위인 병원, 을은 1순위인 학교, 병은 3순위인 학교 대신 2순위인 병원에 투표할 것이므로 최종적인 대안으로 병원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때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할 경우, 갑은 1순위인 병원, 을은 1순위인 학교, 병은 3순위인 학교 대신 2순위인 병원에 투표할 것이므로, 병원이 채택될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병원과 경찰서의 다수결 승자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결정된다. 참고로 이때는 갑은 병원, 을은 2순위인 경찰서, 병은 1순위인 경찰서에 투표할 것이므로, 최종적인 대안으로 경찰서가 결정될 것이다.
- ③ 투표의 역설은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표>의 상황에서는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할 경우에는 병원과 경찰서의 최종 투표 결과 경찰서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결정되고,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에는 학교와 병원의 최종 투표 결과 병원이 최종적인 대안으로 결정되므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④ <표>에 따르면 갑, 을, 병의 1순위는 각각 병원, 학교, 경찰서이므로, 이 셋을 동시에 투표에 부치면 세 사람이 병원, 학교, 경찰서에 각 한 표씩 투표하게 되어 어떤 대안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 ⑤ 병원, 학교, 경찰서에 대한 갑, 을, 병 세 사람의 선호 순위가 바뀌지 않아도 두 대안을 선정하여 다수결로 결정한 후 남은 한 가지 대안과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하는 경우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 투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08 안전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 결정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고 했다. 따라서 안전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많아지게 되면 외부 비용에 해당하는 ㉠은 우하향하고, 의사 결정 비용에 해당하는 ㉡은 우상향하므로 모두 이동하게 된다.

모답 풀이

- ① ㉡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므로 외부 비용에 해당한다. 외부 비용은 어떤 안전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전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하며,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고 했다. 따라서 반대표의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값이 커질 것이다.
- ② ㉠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므로 의사 결정 비용에 해당한다. 의사 결정 비용은 투표 참가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하므로 투표 참가자들을 설득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그 값이 작아질 것이다.
- ③ ㉠은 U자 형태의 곡선으로 총비용에 해당하는데, 총비용은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이다. <보기>에서 n은 ㉡과 ㉠을 합한 값이 최소화 되는 지점, 즉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으로, 안전 통과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 ④ 외부 비용은 투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경우 0이 된다고 했으므로, 이때 ㉡의 값은 0이 된다.

V 듣기·말하기

+ 개념 확인하기

114~115쪽

- 1 공손성 2 협력 3 비난, 칭찬 4 ㄱ, ㄷ 5 ○
6 × 7 주장 8 논제 9 ○ 10 ×
11 중대하며, 조치가 시급함 12 크다는



대화의 원리와 공동체의 담화 관습

내신 물리기

116~117쪽

- 01 ② 02 ④ 03 ④ 04 ② 05 ① 06 ③

01 <보기 2>의 하영은 회의에 늦은 채빈의 사과에 괜찮다고 말하며 오히려 회의 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요령의 격률을 사용하여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의 채빈은 자신이 제안한 회의에 늦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한 관용의 격률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의 승민은 담화의 목적을 밝혀 회의의 시작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의 정석은 승민이 좋다고 한 의견에 공감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동의의 격률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의 민주는 맥락에 맞게 정석의 의견을 듣고 다른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동희는 축구 잘해?라는 '화성'의 질문에 '전학 오기 전에', '학교에 유소년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와 같은 불필요한 말까지 하고 있으므로 ㉠의 발화에는 질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모답 풀이

- ① 동희는 화성의 말이 끝난 후 대답하였으므로 대화 순서를 무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③ 동희는 자신에 대한 정보만을 말하고 있다.
⑤ 동희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만한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03 대화의 맥락으로 보아 ㉠은 화성이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모답 풀이

- ①, ② 화성이 축구화를 찾는 것은 의도적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거나 상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하는 행동이 아니다.
③ 축구부 입단 시험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인지는 이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다.
⑤ 화성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라는 지시문의

내용과 화성의 말을 듣고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라고 위로하는 동회를 볼 때, 화성이 정말로 축구화를 가지고 오지 않아 당황스러워서 ㉠처럼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

04 ①, ③, ④, ⑤에는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말만 조심하게 하는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②는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이다.

모답 풀이

- ①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로, 말하는 것이 사실이 될 수 있으니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하게 말해야 한다는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③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로 조심하게 말해야 한다는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④ 화살은 쏘아도 찾을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으니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조심하게 말해야 한다는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⑤ 가르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조심하게 말해야 한다는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05 김 선생이 담소를 나누기 위해 벼의 집에 찾아 갔을 때, 벼는 술상 위에 채소만 내오며 김 선생을 인색하게 대접한다. 김 선생은 마침 마당에서 모이를 쪼는 닭들을 보고 '닭을 요리하여 대접해 달라.'는 말 대신 자신이 타고 온 말을 잡은 후 자신은 닭을 빌려 타고 가겠다는 재치와 익살이 담긴 말로 자신의 생각을 돌려 말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②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벼가 김 선생에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라고 한 것은 김 선생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경청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③ 이 글에서 벼이나 김 선생의 목소리의 높낮이나 장단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김 선생과 벼는 친구 사이이므로 뒷사람이 가르침을 주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김 선생이 재치와 익살이 담긴 말로 벼의 잘못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김 선생이 벼에게 꾸짖음을 듣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나에서 유모가 전한 부인의 말씀을 보면 상대방을 높이는 말인 '노야'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이고 있으며, 자신이 거처하는 방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인 '누실'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낮추고 있다. 즉 나에는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이 드러난다. ㉢의 주인 역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지만 '차린 것이 없'다고 하며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딸은 어머니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요즘 책값이 많이 올랐'다고 돌려 말하고 있으므로 돌려 말하기(완곡어법)라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아들은 아버지가 한 음식이 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 돌려 말하기와 반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옷 가게 점원은 손님에게 피부 색조를 근거로 들어 원색을 권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과는 무관한 것이다.
- ⑤ 정부 관료는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관해 받은 질문에 대해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여 '시간이 지나면 상세히' 말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DAY 19 논증 구성하여 토론하기 **내신 물리기** 118~119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1 토론은 규칙에 따라 순서가 정해진 말하기이다. 따라서 상대측의 질문과 반박에 따라 토론자의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모답 풀이

- ① 토론은 시간과 순서가 정해진 말하기이므로 토론을 할 때는 발언 순서와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②, ⑤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주장할 때나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때 모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③ 이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반대 신문이나 반론 과정에서 상대측 토론자가 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나 모순된 내용, 논리적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한다. 따라서 토론 과정에서 상대측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논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는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모답 풀이

- ㄱ. 이 토론에서 사회자가 토론의 규칙을 설명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ㄴ. 이 토론에서는 참여자가 발언 순서를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 ㄷ. 이 토론에서 사회자가 참여자의 발언을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알아두기

◆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

- 토론의 논제를 제시함.
- 토론의 시작과 끝을 알림.
-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제시함.
- 토론자들이 토론 시간 및 규칙을 준수하게 함.

03 '찬성 1'의 입론에는 논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 관심을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우리나라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인공 강우'와 '실용화'의 개념을 정의하며 토론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실험 단계에서 성공한 강우량으로는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실험의 성과는 우리나라에 한 대뿐인 인공 강우 전용 항공기로 이뤄 낸 것입니다. 전용 항공기를 더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늘려 인공 강우를 시행한다면, 인공 강우로 가뭄과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로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논제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여 차례 수행한 인공 강우 실험 성과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04 '찬성 1'은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근거가 있느냐는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과 같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드러나는 산림청의 그래프 자료를 제시하여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모답 풀이

- ① '반대 2'는 '찬성 1'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였을 뿐, 어떠한 논리를 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찬성 1'이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찬성 1'이 ㉠을 제시한 목적은 입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 ③ '찬성 1'은 ㉠을 제시하여 가뭄 발생과 산불 발생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가뭄 발생 일수가 늘어나며 산불 발생 빈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제시한 자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찬성 1'은 ㉠을 제시하여 산불이 잦은 우리나라에 인공 강우의 실용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을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반대 2'는 '찬성 1'이 '2022 월별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 그래프'를 제시하며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것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A]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찬성 측 주장의 현실성이 높은지를 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게 더 현실적인 산불 예방책이 아니겠냐고 한 것은 상대측 주장의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는 측면에서 한 말이지 상대측 주장을 보완할 방법으로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상대측 주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상대측 주장의 일관성이나 제시한 자료의 출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다. 찬성 측에서 제시한 '2022년 월별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는 자료의 우측 하단에 산림청이라는 자료의 출처가 기재되어 있다.
- ⑤ 공공기관인 산림청의 자료는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대측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도 않다.

알아두기

◆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때의 판단 기준

- 신뢰성: 인정이나 권위에 호소하지 않고, 믿을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가?
- 타당성: 주장과 근거가 연관되어 있으며,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 공정성: 어느 한쪽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으며, 정 의롭고 공평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 06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가뭄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쟁점인 '인공 강우의 실용화는 문제 해결 및 실행에 적절한가?(해결 방안의 실행 및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다. 7ㄱ에 나타나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주장으로는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 산불 문제가 심각하다.'가 적절하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120쪽

01 ④ 02 ②

- 01 반대 측은 입론에서 직관적으로 표현된 별점 평가를 통해 소비자 자신이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별점 평가의 결과는 많은 사람의 평가가 누적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별점 평가의 결과가 직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

모답 풀이

- ① 찬성 측은 입론에서 별점을 매길 때 만족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에 강하게 개입되어 객관적이지 못해 별점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 ② 찬성 측은 입론에서 별점 평가의 단계별 척도인 별 한 개에 부여하는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점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 ③ 찬성 측은 입론에서 몇몇 소비자들만이 악의적으로 매긴 허위 별점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판매가 급감한 사례를 들어, 별점 평가제가 판매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⑤ 반대 측은 입론에서 소비자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 잡은 별점 평가제가 폐지되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였다.

- 02 [A]에서 '반대 2'는 '악의적으로 매긴 허위 별점으로 ~ 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라고 '찬성 1'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며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B]에서 '찬성 2'는 '별점 평가제가 ~ 자리 잡았다고 하셨는데요'라고 '반대 1'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한 후에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며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A]에서 '반대 2'는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며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상대 측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후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B]에서 '찬성 2'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며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상대 측의 의견을 요구할 뿐, 주장에 대한 추가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의 '반대 2'와 [B]의 '찬성 2'는 모두 상대 측의 발언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을 뿐, 상대 측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④ [A]에서 '찬성 1'은 상대 측의 문제 제기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도,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지도 않다. [B]의 '반대 1'은 '물론 다른 방식으로 평

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상대 측의 문제 제기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를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 ⑤ [A]의 '찬성 1'과 [B]의 '반대 1'은 모두 상대 측이 사용한 용어의 모호성을 언급하고 있지도, 상대 측의 질문이 논제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있지도 않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2회

121쪽

03 ② 04 ①

- 03 '학생 3'은 '학생 2'의 '자신의 목숨을 위해 ~ 부정적이라고 생각해.'라는 의견에 대해, [A]에서 '타인의 생명을 ~ 문제라는 거지?'라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 후 '학생 2'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학생 3'은 자라가 '용왕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B]에서 자라의 거짓말로 '피해는 토끼가 보고' 있으며, 결국 자라의 거짓말은 '다른 이를 위기로 몰아넣는 나쁜 거짓말'이었음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요약하여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고 있으나, [B]에서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토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B]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④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진 후 그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자신이 상대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학생 3'이 [B]에서 사용한 '핑계 없는 무덤'이라는 관용적 표현은 '학생 1'의 의견을 반박하고자 활용한 것이다.
- ⑤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토끼전'의 다른 등장 인물인 '토끼'에 대한 평가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 04 '네가 공책을 다 보고 나서 시간이 괜찮다면' 공책을 빌릴 수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고, '너는 정말 필기를 꼼꼼하게 잘'한다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모답 풀이

- ② '네가 불편하지 않다면'이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말하고 있지만, '지금 말고는 볼 시간이 없'다는 자신의 사정만 강조할 뿐 상대방에 대한 칭찬은 하고 있지 않다.
- ③ '네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이며, 상대방에 대한 칭찬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너의 필기 내용은 부족할 거야.'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므로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칭찬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너는 평소에도 글쓰기를 참 잘'한다고 하며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였으나, '너의 공책이 없으면 난 평가를 망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는 표현이다.

VI 쓰기

+ 개념 확인하기

124~125쪽

- 1 × 2 ○ 3 견해, 쓰기, 개요, 쟁점 4 시간적 5 연역
6 × 7 × 8 L

DAY 20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기

나선 물리기

126~127쪽

-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① 06 ⑤

01 ㉠에서 지수는 공원의 운동 시설은 공공시설이며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지수는 공원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나 는 은호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쓴 글이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기를 통해 여러 사람과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03 내용 전개 원리는 크게 시간적 순서의 원리, 공간적 순서의 원리, 논리적 순서의 원리가 있다. 나 는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야간에 이용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바탕으로 푸름 공원에 있는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논리적 순서의 원리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빛과 소음으로 주민들이 야간에 피해를 입고 있음을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모답 풀이

① 나 의 1문단의 '저는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을 제한하여 공원 근처 거주민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 의 2문단에는 공원 근처 거주민들이 공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발생하는 소음과 밝은 조명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우며, 야간에 공원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등 실외 체육 시설을 야간에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④ 나 의 3문단에는 야간에만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냐는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⑤ 나 의 4문단의 '공원 근처 거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를 통해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을 제한했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요청하며 마무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이 글에서 은호는 푸름 공원에 있는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제목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06 <보기>의 ㉠ 자료는 녹색구 실내 체육 시설의 운영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녹색구에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여러 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로는 야간에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없다.

모답 풀이

① 2문단에서 '야간에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의 ㉠ '안전사고 발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야간 관리 인원을 확충하기도 어려워'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의 ㉡ '야간 관리 인원을 늘릴 수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야간에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빛과 소음이 근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의 ㉢에서 소음과 불빛으로 인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인터뷰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우리 녹색구에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의 ㉣ 자료의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녹색구 실내 체육 시설의 운영 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AY 21

언어 공동체를 고려한 개성이 드러나는 글 쓰기

나선 물리기

128~129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1 글쓴이는 시골 마을에서 소통하며 나누는 경험을 하며 '옛날에 우리 고향 마을도 그랬던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모답 풀이

① '나'는 '나를 부르는 그 눈빛은 무구하다.'라고 하며 시골 사람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②, ③ '나'는 옛날 고향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소통 문화를 그리워하고 있다.

⑤ '나'는 산다는 것은 나하고 남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며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였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도시와 시골 마을에서 겪은 일화를 밝히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 존중하며 나누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도시와 시골 간의 문화적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상 독자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03 글쓴이는 자신이 나고 자란 경상도 남부 지역의 사투리를 이용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를 얻은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계절 변화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를 얻기까지의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뿐, 노력하는 삶과는 관련이 없다.

04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것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더위에 대한 할머니의 말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라는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데 이는 글쓴이만의 개성적인 발상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② '먹다 떨곤 하드같이 길바닥에서 녹는 한여름'에서 한여름의 더위에 대한 글쓴이의 개성 있는 비유적 표현이 드러난다.
- ③ 글쓴이는 흔히 씨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개성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글쓴이는 할머니가 하셨던 "가마~~~~ 있으므 마, 한 개도 안 듬다."라는 할머니의 말을 인용해 여름의 더위에 대한 성찰을 위트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쓴이는 ①에서 여름의 특징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한 후, ②에서 할머니가 했던 말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③에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130~131쪽

01 ② 02 ②

01 ㉠의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에서는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모답 풀이

- ① ㉠의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일부 학생들을 고려하여, ㉡에서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하며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의 로봇세 도입의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에서는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④ ㉡의 글 쓰는 학생과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을 고려해, ㉢에서는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⑤ ㉢의 글 쓰는 학생과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을 고려해, ㉣에서는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했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02 ㉡에서는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를 찾아 과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모답 풀이

- ① ㉡에서는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였고,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의 해석을 배경으로 한 설명이다.
- ③ ㉡에서는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의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 대상'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한 것이다.
- ④ ㉡에서는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에는 외국에서 로봇을 수입해야 하므로 국가적 손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의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 ⑤ ㉡에서는 전문가들이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데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로봇 기술의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에서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의 의견만을 선택하여, 로봇세 부과가 로봇 관련 특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2회

131쪽

03 ⑤

03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에서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쉽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하였고,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에서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나는 이제 주말이 오면 종종 숲으로 향한다.'에서 '쉽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나의 행동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마음 상태의 변화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나타낸 표현을 찾을 수 없다.
- ②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다.'에서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쉽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나타낸 표현을 찾을 수 없다.
- ③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숲을 찾아가 숲의 응원을 받고 와야겠다.'에서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만족스러웠다'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제시했을 뿐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쉽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던 숲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에서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쉽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Ⅶ 문법

+ 개념 확인하기

134~141쪽

- 1 × 2 ○ 3 × 4 (1) ㉠ (2) ㉡ (3) ㉢ 5 유음화
6 비음화 7 ㅈ, ㅊ 8 된소리되기 9 ○ 10 ×
11 ㉠ 12 × 13 × 14 널따 15 할른다 16 아느냐
17 커, 잠가, 따라 18 ㅎ 19 ㄴ 20 반모음 21 맨입, 한여름
22 학교에 23 개연따 24 × 25 × 26 ○
27 (1) ㉠ (2) ㉡ (3) ㉢ (4) ㉣ (5) ㉤ (6) ㉥ 28 종결 어미
29 예사 낮춤 30 께서 31 ○ 32 × 33 시제
34 과거 35 -는- 36 장차 37 미래 시제 38 동작상
39 완료상 40 ○ 41 × 42 간접 인용 43 간접 인용
44 직접 인용 45 직접 인용 46 (1) ㉠ (2) ㉢ 47 ○
48 ○ 49 ㉢, ㉤



음운의 변동

나신 올리기

142~144쪽

- 01 ㉢ 02 ㉡ 03 ㉠ 04 ㉠: ㉡, ㉢, ㉣, ㉤, ㉥, ㉦ /
㉧: ㉡, ㉢, ㉣,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01 <보기>의 단어들은 [빔깁], [바깁], [부억], [풀쑹]으로 발음된다. 이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일곱 개의 자음만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반영된 것이다.

모답 풀이

- 모음 탈락이나 'ㅎ' 탈락, 'ㄹ'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 첨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ㄴ' 첨가나 반모음 첨가가 이에 해당한다.
- 축약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거센소리되기가 해당된다.
- 교체 현상 중 된소리되기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밥[밥]'은 끝소리가 'ㅂ'이고, ①은 '뒛[뒛]', ③은 '뱃[뱃]', ④는 '히웁[히웁]', ⑤는 '갈다[갈따]'로, 끝소리가 모두 'ㄷ'이다.

03 ㉡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고, ㉣는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독립'은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이 [ㄴ]으로 발음되어 [독닙]이 되고, 이후 ㉣가 적용되어 [동닙]으로 발음된다.

04 ㉡, ㉢, ㉣, ㉤, ㉥, ㉦, ㉧는 비음 'ㄴ'이 유음 'ㄹ' 앞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고, ㉡, ㉢, ㉣, ㉤는 비음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05 '염려'는 유음 'ㄹ'이 비음 'ㄴ'과 만나면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 [염:녀]로 발음된다.

06 ㉠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구개음화이다. ② 굳이[구지], ③ 피붙이[피부치], ④ 닫히다[다치다], ⑤ 낱낱이[난나치]는 모두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① 꽃이[꼬치]는 받침 'ㅈ'이 그대로 연음된 것이다.

07 '밭이랑'과 '끝인사'는 각각 '밭+이랑', '끝+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한 단어이다. 따라서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한다는 구개음화 현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지 않는다.

모답 풀이

- '밭이랑'은 고유어 '밭'과 '이랑'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끝인사'는 고유어 '끝'과 한자어 '인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밭이랑'의 '이랑'은 논이나 밭을 갈아 골을 타서 두드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을 의미하는 명사로, 실질 형태소이다. 그리고 '끝인사'의 '인사'는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 예를 포함을 뜻하는 명사로, 실질 형태소이다.
-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두 단어 모두 'ㄷ, ㅌ' 뒤에 실질 형태소가 결합했다.

08 '앉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안자]가 된 후, 된소리되기에 따라 [안짜]로 발음된다.

09 ㉠ '고파서'와 ㉡ '커'는 각각 '고프-+-아서 → 고파서', '크-+-어 → 커'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 '값다'와 ㉣ '쌔다'는 각각 '가-+-았-+-다 → 값다', '사-+-았-+-다 → 쌔다'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10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의 '홀이불'은 앞말의 끝소리 'ㅌ'에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 '이불'이 결합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홀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홀이불]이 되고, 'ㄴ' 첨가가 적용되어 [홀니불]이 되었다가 비음화로 인해 [홀니불]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모두 구개음화가 적용된다.

11 <보기>의 '학교[학교]'는 'ㄱ' 받침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④ [너는 모름지기 하거베 힘써야 한다]에는 아무런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답 풀이

- '갈 데개[갈때개]'에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입교[입교]'와 '있대[일따]'에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갈등[갈등]'에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신고[신:교]'와 '갑자기[갑짜기]'에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12 <보기>는 'ㅎ'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지어서[지어서]'의 어간은 '짓-ㅌ'으로, 끝소리가 'ㅎ'이 아니다. 나머지는 어간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발음할 때 'ㅎ'이 탈락하였다.

13 '엮서[엮씨]'는 'ㅂ' 받침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나머지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① 축하[추카], ③ 좋다[조:타], ④ 덤히면[더피면], ⑤ 앓히다[안치다]로 발음된다.

- 14 ① ‘독립문[동님문]’은 비음화(㉠)만 일어난 말이다. ‘독’의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ㄹ’이 [ㄴ]으로 발음되고, ‘립’의 받침 ‘ㅍ’이 ‘ㄹ’ 앞에서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먼저 일어난 후[동님문] 비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났다.

모답 풀이

- ② ‘꽃힌[꼬친]’은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ㅌ’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말이다.
 ③ ‘있다[일따]’는 음운의 교체 현상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말이다.
 ④ ‘홀이불[홀이불] → 홀니불 → 혼니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 말이다.
 ⑤ ‘넙히다[넙피다]’는 ‘넙’의 받침 중 ‘ㅍ’이 뒤에 오는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ㅍ’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말이다. 참고로, ‘넙히다’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먼저 일어나서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 15 ‘습득하고’는 된소리되기과 거센소리되기과 일어나 [습뜨카고]로 발음된다.

모답 풀이

- ① ‘물난리[물랄리]’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만 두 번 일어났다.
 ③ ‘높다랗고[놉따라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과 일어났다.
 ④ ‘부엌만[부엌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났다.
 ⑤ ‘붙이다[부치다]’는 구개음화만 일어났다.
 16 ‘났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과 적용되어 [넉따]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① [업:따], ③ [익따], ④ [할따], ⑤ [안따]로 발음된다.
 17 ‘열-+-니 → 여니’는 용언의 어간 끝소리인 ‘ㄹ’이 몇몇 어미(‘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서 탈락하는 현상인 ‘ㄹ’ 탈락의 예로 적절하다.

모답 풀이

- ① ‘종고[조:코]’, ‘놓대[노타]’, ‘쌓지[싸치]’는 모두 거센소리되기과 나타난다.
 ③ ‘아파서’, ‘아팠다’는 용언의 어간 끝소리인 ‘ㄹ’이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예이다.
 ④ ‘ㅎ’ 탈락은 용언의 어간 끝소리인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탈락하는 현상이다.
 ⑤ ‘흙’과 ‘값이’에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흙’과 ‘값이’의 올바른 발음은 각각 [흑], [갑씨]이다.

- 01 ④는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인 ‘잡수시다’를 통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의 예이다.

- 02 ①은 종결 어미 ‘-어’가 쓰인 ‘해체’로, 비격식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격식체에 해당한다.

- 03 ‘오시래’는 ‘오시라고 해’를 줄인 말로 선생님을 낮추고 철수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가시라고 하셔’도 철수를 높인 것으로, 올바른 높임 표현이 아니다. 또한 의미상으로도 내용(인물의 이동 방향)이 달라지므로, ④와 같이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4 ‘모시고’는 동작이 미치는 대상, 즉 문장의 목적어인 할머니(객체)를 높이는 어휘이다. 참고로 ②는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 05 ⑤의 ‘연세’는 명사 ‘나이’의 높임말로 <보기>의 ㉠에 해당하고, ‘드리다’는 동사 ‘주다’의 높임말로 <보기>의 ㉢에 해당한다.

- 06 상품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여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상품이신’ → ‘상품인’, ‘가격께서는’ → ‘가격은’, ‘삼만 원 되시겠습니까’ → ‘삼만 원입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 07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발화시)을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사건시)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 08 ④는 선어말 어미 ‘-겠-’이 쓰인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 09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①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10 <보기>의 ㉠에서 설명한 진행상을 표현할 때에는 주로 보조 용언 ‘-고 있다’ 또는 ‘-아/-어 가다’를 사용하거나 연결 어미 ‘-(으)면서’를 쓰는데, ③의 ‘마르고 있다’는 ‘-고 있다’가 쓰인 진행상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완료상에 해당한다.

- 11 <보기>에서는 부사어 ‘장차’, 관형사형 어미 ‘-ㄹ’,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12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을 하는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지시 표현이 직접 인용 표현과 다르다. 인용을 하는 화자의 관점에서 ‘미국’은 ‘이곳’이 아닌 ‘그곳’에 해당하므로, ①은 ‘미국에 간 영미는 그곳이 좋다고 말했다.’라고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13 ㉠은 직접 인용 표현이 사용되었고, ㉡은 간접 인용 표현이 사용되었다. ㉠과 같은 직접 인용 표현은 대화를 직접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준다. 이를 ㉡과 같은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생생한 느낌은 덜하지만 직접 인용 표현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문법 요소 내신 올리기

145~147쪽

-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⑤
 06 최신 유행 상품인 이 모자의 가격은 삼만 원입니다. 07 ⑤
 08 ④ 09 ① 10 ③ 11 장차, 만날, 이루어라 12 ①
 13 ④ 14 ③ 15 ③ 16 ㉠: 세상이 눈으로 덮였다. /
 ㉡: 영희가 철수에게 반씩 들렸다. 17 ① 18 ③

- 14 '오늘은 글씨가 잘 써진다.'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오늘은 글씨를 잘 쓴다.'이다. 따라서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목적어는 '글씨를'이 된다.
- 15 ③의 '입히다'는 '입다'의 사동 표현으로,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사동의 의미를 지닌다. 나머지 문장에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피동 표현이 쓰였다.
- 16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로 바뀐다. 또한 피동 접미사를 사용할 경우 ㉠의 '들었다'에는 '-이-', ㉡의 '들었다'에는 '-리-'를 붙이면 된다.
- 17 '찢겨지느'는 '찢-+-기-+-어지-+-느'으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사가 된 것에, 다시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찢기느' 또는 '찢어지느'으로 써야 한다.
- 18 '만지다'는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일 수 없어 짧은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지다'는 '-어지다'를 사용하여 '만져졌다'로 표현한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01 ④ 02 ② 03 ④ 04 ⑤ 05 ② 06 ①
07 ②

- 01 '들녘을'의 '을'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들려글]로 연음하여 발음한다. [들려글]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연음하였기 때문이다.
- 02 ㉠ '흙일'은 [흑일] → [흑닐] → [홍닐]로, 자음군 단순화(탈락), '㉡' 첨가(첨가),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달느'는 [달느] → [달른]으로,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발야구'는 [발냐구] → [발랴구]로, '㉡'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 현상은 '교체'이다.
- 03 ㉠은 첨가, ㉡은 교체, ㉢은 탈락, ㉣은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구급약[구:급약]'은 '㉡'이 첨가되어 [구:급약]이 되었다가 다시 파열음 'ㅂ'이 비음 '㉡'과 만나 비음 '㉡'으로 교체되어 [구:급약]으로 발음된다. '물엿[물:엿]'은 '㉡'이 첨가되어 [물넛]이 되었다가 '㉡'의 영향으로 '㉡'이 '㉡'로 교체되었으며,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으로 교체되었다.

모답 풀이

- ① '설날[설:랄]'은 유음화(㉡)가, '한여름[한:너름]'에는 '㉡' 첨가(㉠)가 나타난다.
- ② '놓아[노아]'는 'ㅎ' 탈락(㉢)이, '없을[업술]'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③ '얹히다[안치다]'는 거센소리되기(㉣)가, '끓이다[꼬리다]'는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다.
- ④ '울조리대[읍쯔리다]'는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꽃꽂이다[꽃꾸타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04 '윙고'는 (나)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이 탈락된 [윙고]가 된다. 그리고 [윙고]에서 (가)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이 '㉡'으로 교체된 [윙고]가 된다. 또한 [윙고]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에 의해 [윙꼬]가 된다.

모답 풀이

- ① '꽃힌[꼬친]'은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② '뫼이[목씨]'는 '뫼'의 'ㄷ'이 연음된 후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③ '비웃[비울]'은 (가)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 ④ '얹고[안꼬]'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05 '형은 어머니께 그 책을 드렸다.'는 특수 어휘 '드리다'와 부사격 조사 '께'를 활용하여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 높임 표현 중 격식체인 '해라제'가 사용되었다.

- 06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의 '왔겠다'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았-'과 추측을 나타내는 '-겠-'이 쓰여 과거의 사건을 추측하고 있다.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지금'과 추측을 나타내는 '-겠-'이 쓰여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② '그가 집에 갔다.'에서 '갔다'에 쓰인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에서 '갔다'에 쓰인 '-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정해진 사실인 양 확신을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 ③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에서 '떠날'에 붙은 관형사형 어미 '-ㄹ'은 '올 것이다'와 함께 쓰여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는 내가 떠난 과거의 시간에 비가 온 것이므로, 이때의 관형사형 어미 '-ㄹ'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 ④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에서 '간다'에 붙은 선어말 어미 '-ㄴ-'은 '지금'과 함께 쓰여 현재의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에서 '진학한다고'에 쓰인 선어말 어미 '-ㄴ-'은 '내년에'와 함께 쓰여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 ⑤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에서 '작았다'는 선어말 어미 '-았-'이 쓰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에서 형용사 '작다'는 '오늘'과 함께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이로 보아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07 ㉢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혔다.'가 된다. 책을 '읽히느'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읽혔다'에 '-시-'를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VIII 매체

+ 개념 확인하기

152~153쪽

- 1 ○ 2 ○ 3 ○ 4 맥락 5 관점 6 ③
7 인쇄 매체 8 영상 매체 9 인터넷 매체 10 ②
11 × 12 ○

DAY 24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

나신 올리기

154~155쪽

- 01 ④ 02 ② 03 ② 04 ① 05 ⑤

01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면 사회적 의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매체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02 ㄱ는 영상 매체로, 다양한 시청각 이미지로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하며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모답 풀이

- ①, ④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모든 매체는 제작자의 의도적인 편집이 가능하며, 편지와 같은 인쇄 매체에서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⑤ 인쇄 매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03 ㄱ의 ②는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노동자의 고된 삶이 강요받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자본가가 노력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04 ㄱ에서 “요즘에는 기업들도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이에스지(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죠.”라고 진행자가 뉴스에서 다룬 사회적 의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②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ㄱ에서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ㄱ에서 ‘진행자’는 ‘환경의 날’과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최근의 기업 동향을 언급하며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을 뿐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⑤ 공신력 있는 기관인 유엔(UN)의 보고서를 언급하는 부분과 전문가인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5 ㄱ의 끝부분에서, 이에스지(ESG) 활동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는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성의 강화와는 관련이 없다.

모답 풀이

- ① <보기>는 다화용 컵 사용의 친환경성이 과장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②, ④ 이 뉴스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인 이에스지(ESG) 경영을 소개하면서 이에스지(ESG) 경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관점에서 이 매체 자료를 이해할 때에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수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이에스지(ESG) 경영의 친환경성이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보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느 기업이 더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이에스지(ESG) 성과 지표는 이에스지(ESG)의 효과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DAY 25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한 매체 자료 제작

나신 올리기

156쪽

-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1 매체 자료 제작 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정한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 관점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관점을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2 제시된 매체 자료는 지속 가능한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것을 실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안내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삶을 반대하는 내용은 매체 자료의 주제와 어긋나며 이 매체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03 제시된 매체 자료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매체 자료 제작 시 비유적 표현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04 제시된 매체 자료에는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57~158쪽

- 01 ② 02 ② 03 ②

01 ㉠~㉣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미세 먼지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복합 양식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은 독도 바다사자의 이미지와 자막을, ㉡은 취재 현장에서 보도하는 영상과 자막을, ㉢은 인터뷰 영상과 지도 이미지, 자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02 ‘행복이’는 뉴스에서 독도 바다사자 복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지역 어민 대표’가 말한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해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03 행사 내용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글에서는 크기와 굵기가 다른 글자들을 확인할 수 없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